

**금추일언** 살아서 남에게 괴로움을  
끼치지 않고 죽어서 근심하  
지 않으면 이는 도를 굳게 본 것으로. 중도에  
맞으니 걱정하지 말라. <부구경·빙일품 195절>

# 東大新聞

발행인: 동국대학교 총장  
편집장: 동국대학교 총장  
주최: 동국대학교  
발행처: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3가 26 (22600-3492)  
전화: 780-714  
팩스: 780-714  
경북 경주시 석장동 707 (71700-2057)

제 1153 호

(주간)

1964. 1. 1 등록번호 다-10  
1955. 10. 13 제3종우편물(가)급인가

The Dongguk University Press

1994년(불기2538년) 8월24일 (수요일)

11

## 총장선출 방식 논란

### 학사보고회서 직선제 문제 제기

94학년도 2학기 학사보고회에서 오복원 이사장의 처사가 총장 직선제 문제점 제기와 관련된 것이어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사장은 처사를 통해 총장직선제의 폐단을 지적하면서 총장선출에 관한 보다 나은 방법을 연구할 필요성이 있음을 밝혔다. 때문에 총장선출에 관한 더 좋은 의견이 있다면 수용할 수도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순용(법학) 교수회장은 "직접 듣지 못한 내용으로 구체적인 입장표명은 할 수 없다"며, 다만 "총장직선제 때문에 생긴 과열·인력 조성등의 혼란은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생길 수 밖에 없는 부산물일 뿐"이라고 밝혔다.

한편 직원노조(위원장=김윤길) 측은 오는 29일에 있을 노사협의회에서 재단의 진의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사장의 발언에 대해 우려를 표한 6개 단과대 학생회 연합(문과대,

이과대, 경상대, 예술대, 사범대, 야간강좌 총학생회)은 총장직선제 폐지가 재단의 입장이라면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총장직선제 폐지에 관한 발언은 지난 7월8일 있었던 한국 대학교육협의회를 거슬러 올라간다.

이때, 총장직선제는 교수내의 분열과 불신을 가중시킨다는 이유로 폐지주장이 일었다.

이후 일부대학에서 총장직선제 논쟁이 야기되었으며, 본교역시 학사보고회를 기점으로 총장선출문제가 제주체들간에 쟁점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문과대 학생회장 박무영(영문4)군은 "재단의 인적, 제도적, 물적 토대를 혁신하고 민주적인 총장선출 과정을 이끌어 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학내 제주체의 연대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2학기 학사보고회

94학년도 제2학기 학사보고회가

지난 19일 오전10시 신라호텔 다이내스티홀에서 오복원 이사장과 민병천 총장, 각 처실장 및 서울·경주 캠퍼스 교수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각 부처별 업무보고에서 기획조정실(실장=황창규·경영학)은 대학 종합평가 준비와 행정편람 제작, 원광대학교와 학술교류협정 체결등을 업무보고가 있었다.

이와 함께, 총장직선제 폐지에 대한 학사보고회에서는 부처별 1학기 업무추진 결과와 2학기 업무추진 계획 보고가 있었으며 21C교육개혁 특별연구위원회(위원장=송석구·철학)의 업무보고가 있었다.

각 부처별 업무보고에서 기획조정실(실장=황창규·경영학)은 대학 종합평가 준비와 행정편람 제작, 원광대학교와 학술교류협정 체결등을 업무보고가 있었다.

또한 교수처(처장=정병조·국민윤리)는 △1학년 교양과목 개설 △교수평가제 실시 △수업의 질적 향상 도모 △본교사 실시 △연구교수제 도입 등을 계획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주캠퍼스 지역개발대학원(원장=김병기·국제경제학) 학위수여식에는 부총장, 대학원장등이 참여하여 행정학석사16명, 관리자과정49명의 수료식을 거행하게 된다.

#### 93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

##### 박사 33명등 5백여명 졸업

93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이 오는 26일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캠퍼스 중앙당과 경주캠퍼스 소강당에서 각각 거행된다. (관련기사 8면)

이날 서울캠퍼스 학위수여식은 오복원이사장, 민병천총장, 황명수 동창회장 등 내외인사와 학위취득자 2백76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학사보고, 학위수여, 총장식사, 처사, 축사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서울 및 경주캠퍼스 박사 33명 석사2백49명, 연구관리자 과정 2백46명등 총 4백73명의 졸업생을 각 대학원별로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대학원 박사33명, 석사76명 △불교대학원 석사16명, 연구과정11명, 관리자과정7명 △행정대학원 석사65명, 연구과정4명, 관리자과정41명 △경영대학원 석사37명, 관리자과정51명 △교육대학원 석사39명, 연구과정3명, △정보산업대학원 석사15

명, 연구과정3명, 관리자과정11명 △산업대학원 석사15명, 관리자과정13명 △지역개발대학원 석사16명, 관리자과정 49명이다.

한편 경주캠퍼스 지역개발대학원(원장=김병기·국제경제학) 학위수여식에는 부총장, 대학원장등이 참여하여 행정학석사16명, 관리자과정49명의 수료식을 거행하게 된다.

#### 고 이종익박사 문헌기증

불교학과에 재직했던 고 이종익박사의 유족들이 지난 6월17일 본교 중앙도서관(관장=김보환·경찰행정학)에 문헌을 기증했다.

이번 기증은 고 이박사의 아들인 이지수(인도철학)교수의 주선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기증된 도서는 고서 선문수경의 6백70여책, 단행본 불서의 연구 외6백50여책으로 총1천3백20여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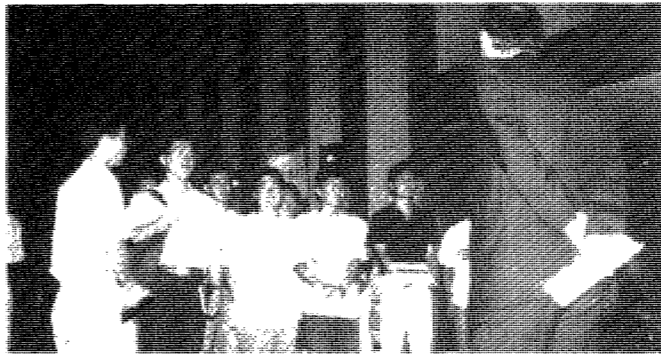
#### 본사 16대 주간엔

##### 심익섭교수



본사 16대 편집인겸 주간엔 심익섭(행정학)교수가 지난 5일자로 부임했다.

지난 92년부터 2년간 행정학과 학과장을 역임해온 심주간은 79년 본교 행정학과를 졸업, 87년 독일 슈파이어대학에서 행정학(조직관리론) 박사 학위를 받았다.



△학사보고회가 끝난 신라호텔 다이내스티홀에서 교수들이 총장선거에 관심을 갖기를 촉구하고 있다.

## 일부 보직 인사개편

### 불교대 학장에 권기종교수

학교당국은 불교대학장에 권기종(불교학)교수를 임명하는 등 일부 보직인사 개편을 시행했다.

일부 보직이 연임되기도 한 이번 보직인사이드는 다음과 같다.

△교무처장=정병조(국민윤리)(이상 8월1일자)

△불교대학장=권기종(불교학) △의과대학장=서리=이성우(의학) △의과대학부속경주병원장=서정숙(의학) △의과대학부속포항병원장=김경철(의학) △보건의장(서울)=김장현(한의학) △체육관장 겸 체육실장=조영석(체육교육) △동대신문사 편집인 겸 주간=심익섭(행정학) △교무처 학술팀장=홍승기(무역학) △기획조정실 국제부장=이원부(정보관리학) △대학원 교학부장=김익기(사회학) △행정대학원 교학부장=김보현(행정학) △경영대학원 교학부장=김석룡(경영학) △산업기술대학원 교학부장=신재호(전자공학) △여학생부처장(경주)=황옥자(불교아동학) △전자계산소장(경주)=이태경(전자계

산학) △보건의장(경주)=이영현(의학) △경영관리연구소장=조희영(경영학) △농림과학연구소장=조병찬(농업경제학) △해외개발연구소장=전창원(무역학) △지역발전연구소장=이병동(농업경제학) △공안행정연구소장=이광우(경찰행정학) △자연과학연구소장=심용길(화학) △한국문화연구소장=홍기삼(국어국문학) △교육문제연구소장=정진환(교육학) △지역환경연구소장=오홍석(지리교육) △유림문화연구소장=백복출(법학) △사회문제연구소장=윤주영(식품공학) △일본학연구소장=신용태(일어일문학) △산리문화연구소장=김갑주(국사학) △사찰조경연구소장=최상범(조경학) △한의학연구소장=김길현(한의학) △영남지역발전연구소장=박준화(행정학) △신학연구소장=이금석(컴퓨터공학) (이상 8월9일자)

## 교수동정

▲주중환(농업경제학)=오는 29일 정년퇴임 고별강연회 및 저서출판기념회를 동국관(L101)과 다량관 교수식당에서 갖는다.

▲신용태(일어일문학)=지난 7월 25일부터 29일까지 중국 천진에서 개최된 환태평양 문화와 문화교류 국제학술연토회에 참석하여 '韓·日·漢語의 공통어근은 探索'이란 제목의 논문발표를 가졌다.

▲이민용(농업생물학)=캐나다 밴쿠버에서 지난 8월14일부터 8일간 열렸던 제5차 균화회의에서 'Induction And Characteristics of Rhizosphere Autogonistic Organisms for the control of Root Rot of Ginseng Disease'란 제목의 논문발표를 가졌다.

▲석원경(화학)=지난 7월24일부터 29일까지 일본 키토에서 열린 'The 30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or Chem'에서 'Mechanistic studies on the Oxidation of Triphenylphosphine by[Ru(TRPY)(BPY)(O)]2+'에 관한 논문을 발표했다.

▲유덕기(농업경제학)=지난 6월 24일 오전10시 동국관(L306)에서 한국 유기농업학회 주관으로 '94년도 한국 유기농업학회 정기총회 및 학술발표회'를 가졌다.

## 보리수

### 이데올로기라는 이상

불교는 자기자신에 대한 집착(執執)은 물론이거니와 진리라고 믿는 것에 대한 집착(執執)에서 빠져 벗어나야 진정으로 자유로워진다고 가르친다. 그래서 때로는 부처님 그분마저도 부정된다.

중국 당나라 때의 선승(禪僧) 단하천연(曇鸞天然: 789-824) 선사가 해림사라는 절에 객승으로 갔을 때의 일이다. 그날따라 운문이 오그라들도록 날씨가 추웠다.

그는 주저없이 법당에 올라가 목불(木佛)을 열고 내려와 도끼로 쪼개 불을 지웠다. 이를 본 그 절의 주지스님이 대경실색하면서 선사를 꾸짖었다.

"불제자로서 어찌 무얼하게 부처님을 쪼개 군불을 지필 수 있던 말인가?"

"나는 부처님을 쪼개 군불을 지핀 일이 없소." 주지스님은 타다남은 목불의 손가락을 증거로 들이대며 다그쳤다.

"그렇다면 여기 부처님의 손가락은 뭔가?" "그게 나무토막이지 어떻게 부처님의 손가락이요?"

주지스님은 노기가 팽창했다. 그러자 단하는 천연덕스럽게 타다남은 불씨를 뒤적거렸다.

"이 목불이 부처님이라면 사리(舍利)나 찾아 봅시다." "예, 목불에서 어떻게 사리가 나오겠는가?"

"그렇다면 목불은 부처님이 아니라 나무토막일 뿐이지요." 주지스님은 말문이 막히고 말았다.

진리를 추구하는 선승들 앞에는 일체의 권위와 이상이 거부된다. 부처님조차도 그 앞에서는 거추장스러운 이상일 수 있다. 그것을 뛰어넘어야 진리의 새지평이 열린다. 이것이 선불교(禪佛敎)의 정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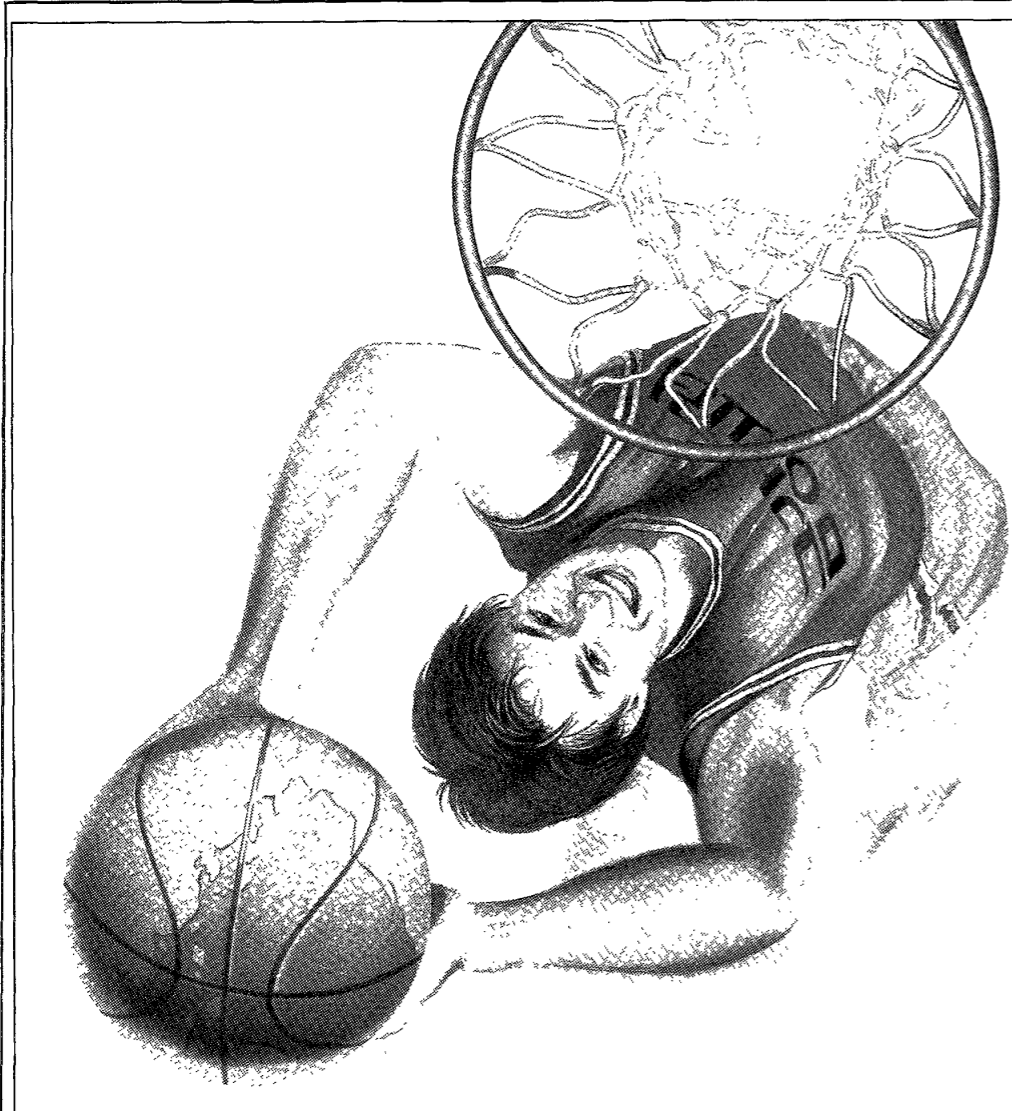
단하천연선사의 과거저 소불(佛佛)은 요즘 우리사회의 분위기에 비추어보면 여러가지를 생각해 해준다. 많은 사람들은 이데올로기라는 종언을 고하고 있는 시대에 살면서도 아직도 이데올로기라는 이상에 빠져 다른 것을 용납하려 하지 않는다. '주체사상'이라는 이상에 집착하고 있는 젊은이들, '매카시즘'이라는 이상에 집착하고 있는 보수주의자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다.

그 대상이 무엇이 됐든 그것에 너무 집착하면 그 순간부터 편견과 독단이 생긴다. 편견은 합리적인 생각이 투입할 구멍을 막아버린다. 이렇게 되면 투쟁과 폭력, 갈등과 파괴만이 일어날 뿐이다. 지금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데올로기라는 이상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주체사상을 불태우고 매카시즘을 불태우는 곳에서부터 참다운 민족해방의 길이 열릴 것이다.

洪思誠

## 분사사행

- △임 차장 =문화1차장 겸 사진차장
- △이유리(문과대 국문2) = 김소영(사범대 역교2)
- = 취재1차장 = 문화2차장 (이상 8월24일자)
- ▲곽주영(이과대 통계2) = 취재2차장
- △이민영(법정대 야간법2) = 취재3차장
- ▲양수정(이과대 통계2) = 사회1차장
- ▲윤진화(인문대 국문2) = 사회2차장
- = 사회2차장 ▲김덕실(인문대 중문2) (이상 7월31일자)
- ▲허동혁(공과대 화공2) = 문화1차장 겸 사진차장
- = 김소영(사범대 역교2)
- = 문화2차장 (이상 8월24일자)
- △임 수승기자
- ▲이수훈(농과대 농경1)
- ▲안은실(야간강과 정보관리1) (이상 6월10일자)
- △외원면직
- ▲김덕실(인문대 중문2) (이상 7월31일자)



## 세계를 향한 파워 덩크슛

영원한 승자도 영원한 패자도 없는 냉철한 세계시장—  
세계의 경제를 주름잡던 어제의 강국도  
오늘은 더이상 면화를 주도해 나가지 못합니다.  
우라는 이제, 더 넓은 곳을 보고 뛰어어야 합니다.

더 좋은 건축자재를 생산하는—(주) 금강 세계적 명성의 페인트, 수지, 실란트—고려화학 뛰어난 설계와 완벽한 시공—금강종합건설 이들이 바로 더 넓은 세계시장을 바라보며 철저한 인재양성과 끊임없는 기술개발로 국제 경쟁력 강화에 힘쓰는 우리의 자존심입니다.

세계는 바로 우리가 누려야할 무한한 코트—  
금강 고려가 뛰고 있습니다.

## 금강·고려

▲출자 금강 ▲고려화학 ▲금강종합건설

‘한국사회의 이해’ 논란

학문자유 보장되어야

학문, 그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

나라에는 법이 있기 마련이고, 이 법이란 맑은 물처럼 순리대로 흐르라는 뜻이라 하겠다. 바로 이 법은 순리에 거슬러서도 안되며, 만인의 평등과 자유를 보장하여야 하는 것이 법인 것이다.

내가 굳이 이 법을 거론하는 것은 다름 아닌 최근 ‘공안정국’의 분위기 속에 한 대학의 교양강좌 교과목인 ‘한국사회의 이해’라는 책을 두고 ‘이적성’ 시비로 이 책의 집필 교수와 출판사대표의 소환장 발부 및 강제구인 방침에 대한 것이다.

대학은 ‘진리 탐구의 장’이고, 학문의 상아탑이라고 나는 대학학원의 교양수업때 특색이 들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이러한 학문탐구의 순수한 열정이 가득한 곳이 별정(가)교수, 별정(가)책으로 학문하는 것은

로 규정되어 버렸다. 학문, 사상의 자유가 엄격히 헌법에 보장되어 있음에도 ‘이적성’을 들먹이며 그 자유를 차단하고 가로막는 것은 도대체 이 나라의 대학에서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비판하라는 것인가.

대학은 국정교과서를 가지고 교육받는 곳이 아니다. 자유로운 연구 활동과 그에 따른 다양한 비판이 이루어 지는 곳이어야 하는 것은 세상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본다.

한 나라의 대학에서 연구활동과 학문, 사상의 자유가 유린된다면 그것은 그 정권의 도덕성은 말할 것도 없겠거니와 역사는 질곡에서 헤매이고 말 것이다.

이제 더이상 순리를 거스르지 말고 학문, 사상의 자유를 완전히 보장하고 그에 따른 자유로운 비판의 장으로서의 대학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김필중 (법정대 야간법학과)



개성있는 목소리를 가진 동대인을 찾습니다. 독자여러분의 생각이 담긴 글, 사진 만화를 보내주세요.

채택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합니다. 문의는 (02)260-3491-2 (0561)770-2057 하이텔 (ID: 2603491, press11)

총장직선제 폐단발언 시대흐름 역행 행위

지난 8월19일 학사보고회와 교수회 총회 행사가 신라호텔에서 열렸다.

교수회 선거에서는 이순용 현교수회장을 필두로 큰 변화없이 유임되었고 별무리없이 행사는 마쳤다. 그러나 이날 참석학 재단이사장 발언은 행사이후에도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재단이사장 “총장 직선제는 많은 폐단을 가지고 있다. 우리학교 선거에서도 직선제 폐단은 고려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며 재단내정에 의한 총장선출을 강력히 주장했다. 사회재단의 많은 문제점이 재단에 집중되어 있고 부조리의 모순을 파헤치는 근본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번 이사장 발언은 또 다시 재단의 문제점을 적나라게 표현하는 대표적 사례가 되고 있다.

박무영 (문과대 영문과-문과대 학생회장)

김교수 복직의문 설득력있는 해명 해야

87년12월 교수공채때 경주캠퍼스에 있던 김교수는 자신의 전공을 ‘인도중세철학’으로 허위 기재한 채 자신의 전공 ‘간디’와는 무관하게 영입되었으며 ‘경주캠퍼스의 교수요원’은 서울로 올라올 수 없다는 교원 인사원칙도 무시되었다. 사무상의 착오나 허위서류 제출로 임용된 경우에는 발령을 취소하고 해임할 수 있다는 교원인사규정 제1장 총칙 제3조 3항에 명백히 해당하는 것으로 이것을 위반함으로써 인도철학과 교수님들, 학생들 모두가 기만적 행위의 희생양이 된 것이다.

이삼환 (불교대 인도철학과)

현공안정국 규탄 학생회 연대 필요

90년대 이후 학벌들의 성향에 대해 논할때 전제가 되어왔던 것은

이삼환 (불교대 인도철학과)

조대 시

보아다오, 봄날 아지랑이 바라보듯

방기홍

자유 발언대

재단이사선임제도, 악순환 근원

며칠 전에 잠을 자려는 국민학교 3학년인 딸아이에게 “이제 밤공기가 서늘하니 문을 닫고 자거라” 했더니, “방이 더우면 (땀띠) 가렵고 가려우면 밤잠을 못자고 밤잠을 못자면 낮잠을 자야하고 낮잠을 자면 밤잠을 못자고 또 그러면 낮잠을 자야하고” 하면서 해해거렸다. 이를 같이 듣고 있던 아내가 “그런 것을 악순환이라고 한다” 라고 일러주었다. 딸아이는 장난스레 한말이건만 ‘악순환’이라는 제나이에 다소 어려운직 한 논리 하나를 배운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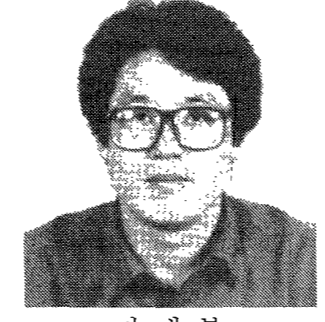
부처님께서는 윤회의 악순환 구조를 12년기로 밝혀셨고, 이의 근본 무명을 밝힘으로써 해탈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모욕지 악순환이라는 것은 고통을 이기려는 최초의 원인이 있기 마련이다. 우리의 역사, 정치, 경제, 사회, 종교 등 모든 부문에서 나타나는 불합리한 현상들은 모두 따져보면 ‘악순환’의 구조를 갖고 있다. 그리고 그것들은 모순된 구조(無明의 사회화)에 기생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챙겨온 세력과 그 기득권을 지키기위해 모순 구조를 확대 재생산하는 ‘악순환’이 늘 함께 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의 조계종단의 개혁도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것으로 보인다. 정화과정에서 수가 열세였던 비주스님들이 무리하게 세를 보완하고 완력으로 대처자들을 몰아내면서 수많은 폭력성들을 배출하였고, 또 이 과정에서 세속 권력과 결탁하여, 결과적으로 폭력 승과 권승을 배출하였고 이들이 기득권을 유지 확대하는 과정에서 세속적 부와 권력을 추구하는 비불교적인 풍토를 만연시켰던 것이다. 최근의 종단 개혁은 이를 바로 잡아 세속 권력에 대해 자주적이며,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교단을 건설하자는 것에 다름아닐 것이다.

이희선 (불교학과 85졸-민주동문회 부회장)

‘토지’의 완간에 부처 결심은 결과와 결과를 잇는 과정

‘토지’의 작가 박경리씨가 815 일 전8부에 달하는 대하소설 ‘토지’의 말미를 그렸다. 실로 25년을 이어온 작가의 살아있는 정신에 찬사를 보낸다.



지재봉 (대동기획음향사업부장-인철82졸) 처음과 끝을 한획으로 그어 볼 수 있다는 것은 행복하다. 암울했던 시대를 두박두박 걸어온 작가는 자신의 외조물과의 끊임없는 애증을 통해 자신을 단련해나갔는가? 건강한 씨앗을 묻어준다. 그리고 기다린다는것은 그 결과

의 허탈함에 주저앉다 다시 시도하는 자신과의 단련이다. 시작도 끝도 희망이 무미건조한 삶이란 건장한 자의 것이 아니니 그렇지 않다. 커다란 처음을 준비한다는 것도 큰 뜻을 필요로 한다. 아득한 끝을 내다보며 시작한다는 것은 긴 인내가 요구된다. 나는 씨앗을 준비하는 뜻있는 자를 존중한다. 뜻을 세운다는 것은 자신을 역사의 외곽에 받지하지 않겠다는 결심이기 때문이다. 결심은 고집이 아니라 그 필연의 흐름에 자신을 맡기는 것이다. 기다림과 매듭 사이의 파나는 노력, 결과와 결과를 잇는 과정일 따름이다. 아직 씨앗을 준비하지 못한 나에게, ‘토지’의 완간을 보며 그 무덤덤 여운의 조급함을 뜻을 바로 세우라고 말 건내오고 있다.

여론매체면 함께 만들어요!! 열린글터 자유발언대 동문칼럼 오늘을 사는 동국인 동약광장 초대 지난호 동대신문을 읽고

Large advertisement for '여러분의 목소리를 담아주세요' (Please capture your voices) with a large 'H' logo and contact information for Dongdaemun University.

독자와의 연결고리인 모니터를 모집합니다. 본교 재학생이면 누구나 환영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기간은 8월24일부터 30일까지. 연락처: 260-3491-2 (서울캠) 770-2057 (경주캠) fax: 279-12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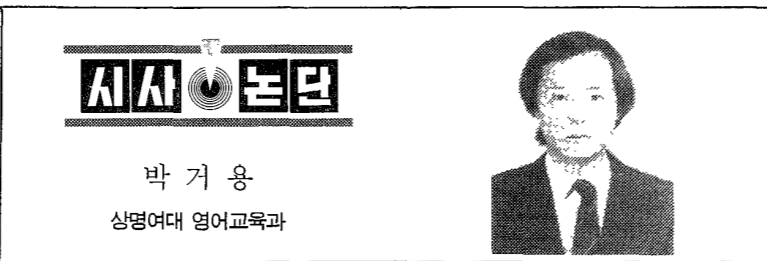
동대신문사 여론매체부

◆총장직선제 과연 폐지 대상인가

자기결정권 확립 위한 대학자치 첫걸음

'수술대에 오른 총장직선제...공정효과보단 후유증 더 심각', '총장직선제 폐지건의 배경-학내반목 초래... 외부총장 어려워'. 전국 1백57개 대학 총장들의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지난 7월초 '개혁과 변화를 통한 대학교육의 경쟁력 제고'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을 때 대부분의 일간신문이 한 목소리로 사회면 머릿기사로 뽑아 올린 제목들이다. 그러나 언론의 '총장직선제 폐지' 보도는 '당사자인 총장들로 부터도 환영을 받은 예외보였다. 뿐만 아니라 한총장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는 사실과는 다른 언론의 일방적인 '작문 보도'였다. 대학총장들은 이번 세미나에서 총장직선제의 '폐지'를 주장하지도, 정부에 '건의' 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경원대 문선재 총장과 경남대 박재규 총장은 총장직선제의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요지의 주제 발표를 했을 뿐이고, 이 발표와 관련하여 총장직선제 폐지를 주장한 총장도 없었다 (교수신문 7월16일자). 언론의 왜곡보도에 놀란 총장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총장직선제의 부작용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같이 했을 뿐 일부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폐지건의는 없었다고 해명하는 행위를 해왔다. 그러나 후속 정정보도를 하지 않은 무책임한 언론은 실행령지 제 6년도 일련 총장직선제의 싹을 짓밟으려 하고 있다.

도대체 상업주의에 찌든 언론의 의도는 무엇인가? 학생운동의 배후에 복한 김정일이 있고, 김일성 장학금을 받은 교수가 있다는 증거없는 박종 서감대총장의 발언



은 오히려 '용기있는' 지식인의 행위로 부풀려지고 있다. 그러나 실상 박총장은 직선제 총장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대학구성주체 (교수, 학생, 직원)의 통치에서 벗어나 '돌출'하고 있다는 점은 전혀 기사화되지 않고 있다. 반면에 이러한 발언이 조성한 신공안정국 속에서, 선정주의로 판매경쟁에만 열을 올리는 언론은 '북한의 주체사상에서 남한 사회를 분석하는 개념이나 규정을 책 (『한국사회의 이해』)에서 직접 비판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강의 중에서도 주체사상에 비판적인 입장을 일관되게 취해왔던 경상대 교수들을 본격적인 조사도 하지 않은 내사단체에서부터 여론재판에 내몰았다.

정부의 보이지 않는 압력과 사회제도의 영향력에 의해 언론이 왜곡 보도한 총장직선제는 현재 어떤 상태에 있는가? 교육부 자료에 의하면 (1993. 10. 27 전국대학총·학장회의자료), 총장직선제는 25개 국·공립대학 전체에서 실시되고 있다. 반면 1백10개 사립대는 1)제단 일방임명 61곳 2)교수직선→제단일명 40곳 3)제단일명→교수직선 3곳 4)기타 6곳 등이다. 그런데 총장직

선제의 현실적 토대가 되는 교수협의회가 설치된 국·공립대학은 25개 대학 중 18개 교에 달하지만, 사립대학은 48개교에 불과하다. 이는 교육환경면에서 뿐만 아니라 자율성면에서도, 국·공립대학이 사립대학보다 많은 자유를 확보하고 있는 현실적인 우리현실의 한 단면을 보여 준다. 뿐만 아니라 이는 사립대학 교수들이 재단의 보이지 않는 압력과 통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교수협의회의 초차 꾸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보여준다.

그러나 우리는 전국의 65개 대학에서 관행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총장직선제가 여전히 현행 교육관계법을 어기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과거 정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임명되던 국립대 총장은 91년 확정된 교육공무원임용령의 신설된 12조에서 '총장직선제'가 아니라 '총장후보의 추천'조항에 의해 여전히 '2인1상'후보 추천에 의해 선출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사립학교법 제53조 (학교의 장의 임명)는 '①각급 학교의 장은 당해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

영자가 임명한다. ②각급학교의 장의 임명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학교법인 및 법인인 사립학교 경영자는 정관으로, 사인인 사립학교 경영자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립학교법은 총·학장 임명을 아무런 사전 절차없이 학교법인이 직접 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40개 사립대학에서 실시하고 있다는 총장직선제도 사실상 법적으로 전혀 보장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직선제는 87년 민주화 열풍 속에서 씩씩을 띄워 지금까지 온갖 교육관계법령을 뚫고 자리하고 있는 셈이다. 일부에서 주장하는 직선제의 폐쇄(분과조정, 소신없는 업무추진, 외부총장 영입의 어려움 등)은 사실 무근한 것이거나 과도기적 현상일 뿐이며 대부분 제도보완과 교수, 학생, 직원의 의견 수렴에 의해 시정될 수 있는 것이다. 직선제는 정부와 재단이 대학구성주체의 의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총장직선제를 임명하는 폐단을 고칠 수 있는 지름길이다. 아울러 자기결정권 확립을 위한 대학 자치의 첫 걸음인 직선제는 아직도 전형적인 재단의 독자적 경영권을 비호하는 사립학교법 등 각종 교육악법이 온존하는 상태에서는 학원민주화를 위한 물꼬를 트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총·학장직선제의 실시 확대를 통해 각 단위대학의 민주적 의견 수렴의 활성화를 이룩하고 나아가서 외압적 요소가 가득 찬 교육관계법의 민주적 개정이 더욱 시급히 요청되는 것이다.

사설

공안정국의 책임은 누가..

"국민의 경각심을 일으키려는 총성이었다"는 한마디로 어이없는 폭로 전은 정리되고 말았는가. 박종 서감대 총장의 '주사파' 발언이 근 한달여만에 정리되는 듯하다. 지난 한 달여 동안 공안정국을 더욱 가속화 시켰던 문제의 발단이 대부분 구체적 증거없이 제3자로 부터 전해들은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밝혀졌다.

이는 지난 한달여간의 파장을 생각해 본다면 실로 엄청난 일이 아닐수 없다. 대학의 총장으로서, 한 교사의 성직자로서의 양심은 모두 어디로 가버린 것일까 하는 의구심은 접어둔다 할지라도 이제 이대대한 책임은 분명 발언의 당사자인 박총장이 지게될 것이다.

물론 모든 책임이 박총장 혼자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를 이용해 공안분위기로 정세를 몰았던 김명삼 정권에도 그 책임이 있을 것이고, 마치 박총장의 발언이 대부분 구체적 증거없이 제3자로 이어대할 책임을 회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지난 한달여간 이런 언론에서 떠돌아 다닌 내용들을 살펴보자. '용기있는 지식인의 발언', '이제 할말은 하자' 등 사실여부의 확인보다는 무조건적으로 그 발언의 내용만을 극한 하고 있었다. 과연 그들은 취재, 보도의 기본원칙도 모르는 무지한 언론이었던가, 그것이 아니면 언론의 양심을 내다버린 관련 기관이었었던가, 이것도 저 것도 아니라면 그들은 정보력이 떨어져서 한쪽의 이야기밖에 실지 못하는 수준낮은 매체였던가. 이들이 중앙 일간지로서의 위치를 지니고 지금까지 활동해왔던데도 이리도 정보력이 떨어지거나 취재, 보도의 기본원칙을 모르고 있지는 않았으리라 생각한다.

물론 한국 언론의 특성상 '질보여야 살아남는다'는 식의 사고방식을 지닌 언론기관 상층에도 문제는 있지만 그보다 한국의 언론을 지금의 모습까지 몰고갔던 공안 당국의 문제는 더욱 커다란 문제의식으로 남을 것이다. 이번 사건만 보더라도 검찰은 박총장의 발언에 대한 아검없는 지지 지원에 더해 관련 기관에 까지 발언을 지원하라고 요청하고 있었다.

이런 공안 당국이 이제 폭력적 문제를 다시 들고 나온다. 언젠가 그러했듯이 정권은 그들의 주장이 공지에 돌리면 화제를 비웃는다. 그 중 학생운동의 가장 큰 탄압책인 이적성이 박총장과 함께 불거진 이야기가 왜곡되거나 다시 '폭력시위' 근절을 내세워 특수 조직을 만든다고 한다. '이' 에는 '이'라는 논리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정권은 경찰을 조직폭력배로 만들 작정인가. 왜 폭력시위가 일어났으며 폭력은 더 큰 폭력을 이룰수 있다고 하는 기본적인 사실을 모르고 있는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아무튼 박총장의 발언은 이방에 매카시즘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한낱 해프닝으로 끝을 맺고 있다. 지금의 시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에대한 책임은 박총장 자신은 물론이고 언론, 공안당국이 함께 지는 것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든다.



'94 통일법회·음악회를 다녀와서 남·북·해외 불자 통일 의지 다져

병행위원회 (집행위원장=지홍스님 이하 병행위) 주최, 전국불교운동연합 (이하 전불연) 주관이래 13일 통일법회가 시작됐다.

대회장인 현근스님 (조계사주지) 은 대회사에서 "94년 통일법회 불교종중을 위한 남북해의 불자 기원법회에서 불교도의 의지를 모아 민족통일은 어떠한 외세의 간섭도 배제된 민족 자주원칙, 전쟁으로 이루어진 통일은 동족의 생존을 파괴하는 것임을 자각하여 평화적방법에 의한 통일원칙, 7천만 겨레 모두가 화합과 단결을 이루는 민족 대단결의 원칙"을 천명하며 "통일을 위해서 남·북 당국은 민족화합을 가로막는 어떠한 법적장에도 철폐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뒤이어 병행위 공동대표인 이문욱씨는 90년대 통일실현을 위한 불교도 선언을 남북해의 불자 기원법회

의지를 표명했다.

또한 병행위원은 '94년 통일법회 불교종중을 위한 남북해의 불자 기원법회'를 주관하며 불교도 통일선언을 통해 "불교계 전체의 통일을 결집하는 장을 마련하고 대의를 위해 진수를 쓰는 하나의 노고를 마다하지 않을 각오"라고 밝혔다.

뒤이어 통일시 낭송과 함께 사용서원을 끝으로 통일법회를 마친후 통일법회를 자연스럽게 불어넣을 또 하나의 행사가 마련됐다.

그것은 "통일음악회" 잊혀져가는 철석명철의 의미를 통일의 민족과제를 삼아 '이별이 너무 길다'라는 테마로 분단에 대한 그리움·고통·극복을 형상화해 제1부 '그리운 나라', 제2부 '가야할 나라', 제3부 '평화의 나라'로 구성됐다.

전반에 걸쳐 춤이라는 매체를 이

용하여 권우와 직녀의 이별의 아픔을 갈라진 조국 한반도의 아픔으로 승화시켜 남·북·해외의 제회로 통일법회의 열기를 한층 더 고조시켰다.

마지막 피날레를 일관 사부대중의 신청을 받아 구성된 77쌍의 권우직녀의 오작교에서의 만남으로 장식하여 분단의 극복, 통일 기원의 정서를 일반 사부대중의 가슴속의 열기로 남겼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전불연측은 "통일법회와 통일음악회는 각기 다른 방식으로 남북통일이 7천만 겨레의 열망이라는 진실을 불자들의 목소리로 전달한 것이 큰 실득력을 가지며 불교계는 이번 행사를 확실한 통일의 오작교가 될것이다"라고 이번 행사의 의의를 설명했다.

이 행사를 계기로 남북해의 불자대중에 대한 통일법회를 확산하여 90년대에는 반드시 평화적이고 자주적인 조국의 통일을 천명하겠다고 나서는 불교계의 움직임은 다시 한번 그 간절한 통일의 결실이 그리 멀지않은 않다는 사실을 새삼스럽게 한다.

(양수정 기자)

만평을 이어받으며...

무슨말을 써야할지 모르겠다. 북한과 동시에 만평을 받게 되어서 마음도 약간 무거운것 같다.

현대사회에서 만화의 힘은 무시 못할 정도로 크다고 생각한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만화를 단지 보고 즐기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 외의 것만 같아도 마냥가지로 집안의 책꽂이에 어깨를 나란히 할날도 멀지 않은것 같다.

현재 우리나라는 양적 수준에서 질적인 수준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인 것 같다.

만화는 그리든 작가뿐만 아니라 그 그림을 보고 사람들이 얼마만큼 이해할 수 있는가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보게될 아무 생각없이 눈길따라 손가는데 그런 저의 만평을 보시고 아쉽 없는 질책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박 현 진  
(공대 전기공학 2)

**일반휴학원접수**

'94학년도 제2학기 일반휴학원을 아래와 같이 접수함.

**아 래**

1. 접수기간: '93. 8. 24(수)~8.26(금)
2. 접수장소: 학적과
3. 대상자: '94. 8월말 현재 재학생으로서 가사 또는 개인사정으로 휴학을 원하는 자.
4. 구비서류: 일반휴학원(소정양식, 보호자 연서요)
5. 일반휴학은 계속하여 2학기를 초과할수 없으며, 재학기간중 통산하여 4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6. 일반휴학기간 만료후 복학치 않은자는 휴학기간 만료 제적됨.

1994. 8.

**교 무 처 장**

**공 고**

1994학년도 제2학기 근로장학생 선발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아 래**

1. 지원자격: 가.1·2·3학년 재학생으로 성적이 양호 하고 학비조달이 어려운자 나.주당20시간 이상 근무 가능한자
2. 접수기간: '94.8.24(수)~8.25(목)
3. 면 접 일: '94.8.26(금)
4. 발 표: '94.8.29(월) 오전11시
5. 지원서 배부 및 접수처: 본교장학과
6. 근무부서: 도서관 전자계산소 비상계획과 학적과 외국어교육원 장학과 계산고시학사 여학생부 처장실 공과대전산실 취업자료실 이부대교학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학과(☎3050~3051)로 문의하시기 바람.

**학 생 처 장**

**학교회계 자금운용 계산서(교비회계 및 기성회비회계)**  
(1993. 3. 1~1994. 2.28) (단위: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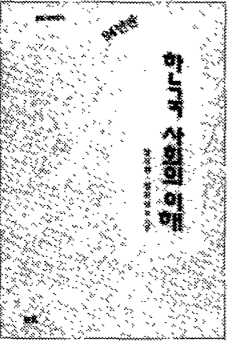
수 입		지 출	
과 목	금 액	과 목	금 액
I. 당기자금수입	64,695	I. 당기자금지출	64,624
1. 납 입 금	(48,179)	1. 인 건 비	(25,122)
① 입학금	1,258	2. 관리운영비	(5,098)
② 수업료	34,221	(1) 여비	208
③ 기성회비	12,700	② 수용비	1,963
2. 수수료수입	(2,228)	③ 피복급달비	1,437
① 입학원시대	234	④ 세세과과금	35
② 수형료수입	1,893	⑤ 관공비	90
③ 증명료수입	101	⑥ 시설유지비	1,122
3. 전입 및 기부금	(7,370)	⑦ 교육후원비	66
① 학교운영비전입금	2,267	⑧ 행사비	138
② 병원전입금	3,782	⑨ 박물관관리비	39
③ 지정사실비전입금	22	3. 학생경비	(8,176)
④ 수탁회계전입금	118	(1) 실험실습비	941
⑤ 특정기부금수입	1,176	② 학생복지비	7,235
⑥ 국고보조금수입	5	4. 일시관리비	(1,069)
4. 기본재산수입	( 83)	5. 연구비	(4,360)
5. 기입수입	( 776)	6. 기타경비	( 333)
6. 기타수입	(2,372)	7. 투자자산지출	( 8)
(1) 불용품매각수입	2	8. 유형고정자산매입	(8,863)
② 변상 및 위약금수입	1	(1) 기계기구매입비	1,948
③ 예금이자수입	2,169	② 비품및집기매입비	215
④ 정수입	200	③ 차량매입비	123
7. 고정부채증가	( 40)	④ 도서구입비	690
8. 적립예금인출	(3,647)	⑤ 박물관유물매입비	27
II. 자금수입조정	17,949	⑥ 건설기계경	5,860
1. 유동자산감소	(4,756)	9. 무형고정자산취득	( 2)
① 선급법인세환입	336	10. 고정부채감소	( 810)
② 미수금	110	11. 적립예금지출	(0,783)
③ 거지금급회수	4,310	II. 자금지출조정	18,020
2. 유동부채증가	(4,096)	1. 유동자산증가	(4,827)
① 일시차입금	206	(1) 선급금	82
② 예수금	1,186	② 선급법인세	435
③ 전수금	2,704	③ 가자급금	4,310
가. 전기발생수금공제	▲5,668	2. 유동부채감소	(1,250)
나. 당기발생수금	11,372	(1) 미지급금	202
3. 전기발기원운용자금	( 9,097)	② 일시차입금상환	206
		③ 예수금지출	842
		3. 차기이월운용자금	(11,943)
합 계 (I + II)	82,644	합 계 (I + II)	82,644

93학년도 수입·지출 자금운용결산내역을 위와같이 공고함  
1994  
총무처장 홍 영 백

시사 초점

‘한국사회의 이해’

경상대 교양교재 파문



2학기 개강호를 맞아 사회 4면에 고정칼럼이 신설됩니다. 때로는 망원경처럼, 때로는 현미경 같은 시점으로 잘알려지지 않은 일러지더라도 기성언론에서 다루지 않은 (1) 사안위주로 그 이면을 살펴보고 대안과 전망을 제시할 수 있는 난으로 만들겠습니다. 독자여러분의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편집자 주)

“경상대...가 뭐 어떻게 됐다는 거야 ‘한국사회의 이해’ 교재 가지고 논란이 많다면서...”

장상환, 정진상 교수 등 경상대 교수 9명이 공동 집필한 ‘한국사회의 이해’ 교양교재의 이적성 여부를 관제언론과 공안당국에서 들먹이면서 시달려야 급기야는 경상대총장에 의해 ‘한국사회의 이해’ 교재가 폐교되는 사태까지 도달했다.

이로써 일단락 지어진 것 처럼 보여진 이 사건은 지금부터가 시작이었다.

민교협, 민변, 학단협, 민예총, 연노련, 국교협, 사교련 등 7개 단체가 모여 ‘학문, 사상, 표현의 자유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재는

민족문학작가회의, 출판의 자유를 생각하는 모임, 전국대학강사노동조합 등 3개 단체가 포함되어 공동대책위를 결성했다.

각계 단체에서 이번사건은 명백한 교권침해이며 학문의 자유를 훼손하는 처사라는 내용의 성명서가 잇따르고 있다.

또한 공동대책위는 지난9일부터 경상대 교수들에 대한 수사 철회 및 신공안정국중단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따를 함의로 ‘한국사회의 이해’ 교재 여부를 놓고 다시 논의하는 24일(오늘) 경상대학자총회의 결정이 어떻게 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사화부)

심층-기성언론을 진단한다 공안정국 견인차 역할 가장 큰 피해는 대학



북한의 김일성 주석 사망이후 범민족대회를 거치며 조성된 신 공안정국이 그 파장을 더해가는 가운데 이에 발맞춘 기성언론의 선전, 공안보도의 수위가 심각한 상황에 접어들고 있다.

반북, 반공의 범전선으로 무장한 기성언론의 보도행태는 ‘조선일보’, ‘동아일보’ 등의 중앙 5대 일간지 및 ‘KBS’ ‘MBC’ 등 일부 언론매체를 제외한 거의 모든 언론매체를 통해 점점 심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각계의 우려의 목소리를 낳고 있다.

반공이데올로기의 첩보 김주석의 급작스런 사망은 그간 남북정상회담 성사의 기대감에 찬 대북한 보도를 급진화하게 한 계기로 작용한것은 분명한 사실인듯 하다.

이후 5, 6공 이전이나 불수 있었던 반공이데올로기 일색의 논조는 국회 외무통일위원회 이부영 민주당의원의 ‘남북화해와 신뢰구축을 위해’ ‘국민들이 이해한다면’ 조문사절을 보낼 용의가 없냐는 대정부 발언이 상정되자마자 ‘진북성향의 국회의원’으로 몰아 급기야 고발초청에 이르러 까지는 ‘조문파동’을 만들어 냈다.

과거 김일성대통령이 아담총재시절 “김일성을 만날 용의가 있다”는 발언으로 국회의원직 제명을 당했던 20여년전의 열공, 방첩의 시대로의 회귀를 언론이 주도한 것이다. 또한, 전담대 분할사건이 경찰에 의해 발표되자 언론은 즉시 ‘주사파’ 논쟁을 들춰내며 학원 탄압의 빌미를 제공했다.

현 한국언론의 위치 현 기성언론의 공안, 선전보도의 예전과 다른 특징은 이차령 5, 6공 시절 정부에 의해 보도지침 형식으로 내려와 선전하던 수준을 넘어 정부, 하위급 공안정국의 조성을 주문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점이다.

조문파동 및 주사파논쟁까지 한국사회의 몰아치던 국본분열의 양상이 어떤면에서 언론이 만들어 냈는지 다시금 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재환기자)

시각은 정확하고 객관적인 사실취재는 뒤로 하고 추측, 과장보도의 작문성 기사와 방송이 남발하고 있는 현 상황을 볼때 불리하지 않은듯 하다.

실제로 경상대 교수 소환 사건은 서강대 박종철교수의 ‘좌익교수’ 발언이후 언론의 선전추적보도로 인해 검찰추적이 끼여 맞추기식 수사로 강행할수 밖에 없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현재 그 진위여부도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박종철교수의 ‘주사파’ 발언, 사노평, 사노정, 김정일... ‘교수, 언론, 아담... 주사파 7백50명’ 등의 주사파 발언과 언론의 공안정국 만들기에는 지난 50년대 미국의 매카시 상원의원이 2백50명의 공산주의자 명단을 들먹이며 정계와 사회전반을 뒤 흔들었던 ‘매카시 열풍’의 재현에 지나지 않음이 조금씩 증명되고 있다.

공안언론의 희생양 대학 물질증거가 없는 개인의 ‘신념’을 무책임한 보도로 사실인 것처럼 보도하는 언론에 의해 가장 큰 피해를 본것은 학원가이다.

범민족대회를 정점으로 정부는 지금까지 1천3백여명의 연행자와 30여명기량의 국보법위반자 구속 방침을 세운바 있다.

또한 시위진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특수진압부대 창설, 경상대 교양과목교수 수사방첩, 이에따른 학교측의 폐강조치, 대학신문 검열등의 잇따른 학원탄압은 불특정 다수 학생들을 불온 좌경세력으로 낙인찍고 자유로운 학풍조성 및 대학의 자율성에도 치명상을 입히는 결과를 초래했다.

△국가안보를 담보로한 상업주의 △수구세력의 이해에 맞춘 보수적 논조로 그 성격을 뚜렷이 나타낸 현시점의 한국 기성언론은 이제 언론의 지상과제인 객관적 논조를 다시실러 진정한 사회의 공익 역할을 수행함으로써만이 자본과 권력에 예속되었다는 오명을 벗을 수 있을 것이다. (이재환기자)

본사·제10대 학생복지위원회 공동주최 동국대학(원)생 외산담배 대응방안 논문 수상자 명단

- 최우수상-천성국(공과대 컴공 3)
우수상-남궁원(농과대 농경2)
장려상-박만순(불교대 불교2)
구자현(불교대 불교3)

이하 입선자 명단(단과대순)
계호진(불교대 불교4), 강희순(불교대 불교3), 윤성진(불교대 인철2), 하정훈(문과대 독문2), 최세진(이과대 물리2), 임공수(사과대 행정2), 박현정(사회대 사회4), 이경형(경상대 경영4), 조윤정(경상대 경영2), 최장환(경상대 무역2), 김세욱(대학원 농경과 석사과정)

당선 소감

우선 기쁘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별로 기대는 하지 않았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전화를 했더니 최우수상을 차지했다고 하더군요. 처음 작품을 구상하면서 감동이 많았습니다. 공모의 의도대로만 생각한다면 자칫 출연의 위험성을 알면서도 출연을 홍보하는 역할을 하게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담배라는 하나의 상품에 묶이는 것보다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사치 풍조의 문제점을 함께 다루기로 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참 이상합니다. 조금만 경제가 호전이 되었다 하면 반드시 가진 사람들의 사치풍조가 고개를 드러내다. 마치 완전한 정상권의 선진국으로 발전한 것처럼 말이죠. 그전보다 약간 발전된 상태인 것 뿐인데, 왜 이렇게 사치 풍조가 사라지지 않고 있는가 하는 고민은 특정한 한 계층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전반의 한사람이 깨닫고 실천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제아무리 외제가 판친다고 해도 우리가 우리의 것을



사랑하고 애용을 한다면 그것들이 들어설 자리는 좁아질 것이 불보듯 뻔한데, 또한 우리의 상품이 강력한 경쟁력을 키운다면 우리가 우리의 것만을 사용할 텐데하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어렸을 때부터 우리의 것을 애용하는 습성을 기를수 있도록 교육적으로도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겠고 어른들이 숭신수범을 해야 할때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글이 우리의 것을 애용하는 바람을 일으키는 데에 작은 힘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감사합니다.

공과대 컴공과 천성국

심사평

전반적으로 응모작품들의 수준이 낮았다.

논문은 일반적으로 서론에서 목적과 필요성을 명백하게 악술하고 기존 연구들의 내용을 요약해야한다. 본론에서는 분석방법을 제시하고 이에 따라서 서론에서 제시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적절한 논리와 자료를 동원하여 분석해야하며 여기서의 분석결과에 따라 정책적 시사점을 찾아내 결론에 기술해야 한다. 응모한 모든 논문들이 위와 같은 체계를 갖추지 못하여 아쉬웠다. 몇 편의 논문은 아예 시론이 없거나 결론이 없었고 결론이 서론에 온것도 있었으며 서론을 결론안에 쓴 것도 있었다.

경상대 경제학과 교수 박갑식

서도 출처를 밝히지 않았는가 하면 출처를 타 연구결과를 짜집기 한것도 있었다. 철저법의 오류도 더러 눈에 띄었고 학술적인 용어보다는 속어를 사용하거나 과장된 표현이 지나칠 정도로 많았다.

다만 우수작으로 뽑힌 3편의 논문은 상대적으로 적절한 자료와 기발한 도표 내지 그림을 그려 넣어 논문의 구성을 돋보이게 하였고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정성을 쏟은 흔적이 엿보였다. 그러나 실제로 어떻게 표본을 추출하였고 설문항목은 무엇이었으며 어떤 방법으로 조사를 하였는지 등에 대한 언급이 없어 설문조사의 내용은 차치하고라도 정말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지 의심스럽기도 하였다. 우수작으로 뽑힌 3편의 논문을 통합하면 그런대로 주제에 충실한 글이 될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동약로

이정표

94학년도 2학기 학사보고회장 앞좌석에 앉았어야 할 사람들이 없기 때문인지 넓은 홀은 더 넓게만 보였다.

여유롭게 보이기 해도 전혀 그렇지 않은 분위기 속에서 하반기 경쟁사안인 총장선출에 관한 언급이 있었고 기자는 어떤 이야기가 생겼나.

저 길 건너편에 ‘민주총장선출의 집’이 있고 눈앞에는 이정표가 세워져있다.

이정표1. 현행 총장직선제는 대학발전을 가로막는 주요 원인중의 하나이므로 다른 길로 갈것.

교수사회가 분열되고 선거운동 과정에서 무리한 보직을 약속해 이에 따른 후유증이 심각함.

대학의 폐쇄성을 부추겨 학교 밖의 인재를 초빙하는데 구조적 장애물이 되고 있음.

대학 공동체의 분열과 대학사회의 파탄화, 소집단 이기주의를 조장하고 선거후에도 총장이 학생과 직원의 눈

치를 보는 등 부작용이 심함.

이정표2. 항간에 총장직선제의 부작용이 많다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음.

우리 학교는 총장직선제에 관련한 모든 사항을 이제 재단이 맡아서 하였으니 이걸로 가기 바람.

이정표3. 재단의 제안 토대를 혁신해서 올바른 총장선출제도를 안착화 시켜내는 길이 이 길이지만, 먼저 민주대연합 강화로를 지향해야 통과할 수 있음.

이정표4. 선거방식에 상관없이 교수회, 직원노조, 학생, 동문이 대화로써 합의에 도달하면 학내 민주화에 힘을 쏟을 수 있는 인물을 뽑을 수 있음.

주의: 한 주제만 독단적으로 가지 말고 함께가서 민주총장선출의 집에 꼭 들어갈것.

(이유리 기자)

성명서

지난 8월5일 교육부의 대학언론 통제강화 지침에 대한 우리의 입장

지금 우리는 80년초를 연상케하는 신공안 정국을 보고 있다. 이같이 신공안 정국이 형성된 데에는 현정부는 물론 어느 시기보다 올바른 비판의식을 잃은 기성언론의 류도 큼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정권과 언론은 민족의 생명줄인 우리농업을 지키기 위해 수입개방반대를 외치던 한총련 소속 학생들을 좌경·용공으로 몰아부치고, 노동자들의 정당한 생존권적 요구투쟁은 공익성을 모르는 파렴치한 이기주의자들의 행동으로 치부하고 있다.

최근 박종철교수의 근거없는 북한노동당 학생운동 배후조작설은 언론의 확대포장으로 인해 일파만파로 국민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있다. 또한 이에 편승한 김영삼정권은 군사정권시기와 조금도 다른없는 모습으로 연이어 학원철탈과 양심세력에 대한 구속을 자행하고 있다.

이제 정부의 공안정국의 칼날은 성스러운 학문의 영역에도 가해지고 있다. 정부는 이미 경상대 전체학생의 반이상에게 지지를 받으며 진행돼온 강의 수업교재에 대해 이적성 수사를 하고 있다. 이는 대학의 지성과 진리탐구라는 성스러운 영역을 이적성이라는 미명하에 강그리 말살하려는 처사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이러한 정세에서 교육부의 이번 대학언론에 대한 지침은 공안탄압의 연장선에 있다고 파악되며, 이는 대학의 최소한의 자율과 학문, 사상에서의 진보성마저도 짓밟는 처사로 받아들여진다.

이에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은 2천여 기자들의 하나된 목소리로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1. 지난 5일 전국 4년제대학 및 전문대 등 2백92개대학에 내린 교육부의 지침(대학신문(학보)의 편집, 광고운영에 대한 대학의 통제강화, 학생회장 임후보 자격제한 등등) 대학행정에 대한 노골적인 간섭이며, 지성과 이성의 장인 대학을 매카시즘 선봉으로 뒤엎고 대학자율화를 짓밟으려는 처사이다.

2. 교육부의 대학신문 편집과 기사검열강화 지침은, 정권이 기성언론에 대해 세무조사로 언론사들의 목을 죄며 김현철사건보도에 재갈을 물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명백히 대학신문에 대한 탄압과 편집자율권 침해에 의한 것이다.

3. 교육부의 대학신문사 광고수입금 사용내용 등에 대한 관리강화지침은 대학신문사의 실태를 전혀 모르는 지침이다. 현재 전국 10대 대학신문은 광고수익을 학교당국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그 외 모든 재정도 학교당국에서 관리하고 있다. 그리고 학교로 들어가는 광고수익은 대부분 신문제작을 위한 비용이나 보조금 등으로 쓰이게 되며 이의 예산집행도 학교당국이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현실에서 광고수입을 누가 어떻게 전용하고 더욱이 관리를 더 어떻게 강화한다는 말인가? 이는 마치 지금까지 대학신문사에서 학생기자들이 자의로 광고를 싣고 수입금을 유용하고 있으며, 그것으로 운동권의 자금을 대온 것처럼 이해하게 만든 것으로 명백한 명예훼손이다.

4. 지자체, 총선, 대선 등 선거시기마다 대학당국을 통해 대학신문사에 대한 탄압을 자행해온 군사독재정권과 다를바 없이 앞으로 잡혀 있는 지자체 선거, 총선을 대비하여 대학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정부의 이같은 행위는 대학의 최소한의 자율성을 무시하는 것으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5. 우리는 이번 교육부의 지침이 대학언론 탄압으로 이어질 경우 교육부와 대학당국을 상대로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의 이름으로 공동대응할 것이다.

1994. 8.

새날을 여는 민족자주언론의 선봉 제15기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

◊외산담배 대응방안 현상 공모 최우수작

‘마일드 세븐’이여 안녕... ‘솔’을 돌리도

1970년대 초 우리나라의 경제가 급속한 성장을 시작하면서 이에 편승해 한바탕 바람을 일으켜서 크게 사회 문제로 대두되었던 외제 선호 증조가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특히 젊은 층의 청소년들 사이에서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20대 젊은 층의 외산 담배 선호”
“외 우리 사회는 20대 젊은 층의 외제 선호를 크게 사회문제로 부각시키고 있는가. 그 해답은 도산 선생의 이 한마디로 정리될 수 있다.

“청년이 바로 서야 조국이 산다.”
그렇다. 청년들이 올바른 사고와 실천을 보인다면 그 나라는 건강하고 날이 갈수록 더 강해지고 싶은 것이다. 그러나 부끄러운 땅국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요즘 우리는 유독 라우드라든 접미어가 붙은 단어들 - UR, GR, TR, BR 등 - 을 많이 접한다. 특히, UR, 작년말 허무하게 무너져버린 국내 시장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진짜 우리가 우리의 것을 애용함으로써 우리의 경제를 살려야 할 판국이라고 보았을때 20대 젊은 층의 외산 담배를 선호하는 현상은 심각한 사회문제가 아닐 수 없다.

20대 젊은 층의 외산 담배 선호 풍조는 어떤 배경에서 나오는 것이며 무엇이 문제이고 누구의 책임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고 담배라는 하나의 기호품의 범위를 넘어 젊은 층의 외산의 문제로 접근하여 파헤쳐 본다.

외산 담배의 소비 실태

외산 담배의 소비량이 꾸준히 늘고 있다. 특히나 5월 31일 세계 금연의 날에 발표된 세계의 가장 인기있는 담배 시장 서열에 캄보디아에 이어 우리나라가 부끄럽게도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지금도 꾸준히 외산 담배의 소비가 늘어나고 있어 그 순위가 수년전에 바뀌리라 보는 견해들이 많이 거정스럽다. 표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우리 나라의 담배 시장을 잠식하는 외산담배의 점유율이 꾸준히 늘고 있어 주 판매국이 미국과 일본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선호하는 외제품들의 생산국과 일치한다. 이러한 걸로 보아 외제를 선호하는 사상이 외산 담배를 찾는 경향으로 연장되었다고 하겠다. 특히나 우려스러운 것은 표2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실 점유율에 있어서 25%로 일본이 아직도 6.4%의 미국보다는 뒤처져 있지만 판매액과 점유율에 있어 그 증가 비율은 각각 70.9%와 56.3%로 24.6%와 16.4%의 성장을 한 미국에 앞서가고 있다. 또 하나 미국은 다종의 제품으로 우리의 입맛을 구슬리고 있지만 일본의 경우 ‘마일드 세븐’이라는 대표적인 품목 하나로 승부를 걸고 있다. 하나의 품목으로 승부를 건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담배시장에 대한 연구를 아주 많이 하고 있다는 것과 동일한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외산 담배 선호를 부추기는 1차적 배경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외산 담배(특히 일산 담배) 소비량 증가의 배경은 어디에 있는가. 1차적으로 지금 우리 사회의 흐름을, 2차적으로 우리 담배와 판매상의 문제점을 언급해 보자.

1차적인 배경으로 우리 젊은 층의 유행과 시대 감각을 유도하는 부유층 제품들의 무분별한 행동들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들 수 있다. 또한 편이 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가진 사람들의 생각과 아직도 일본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어른들의 모습을 그 배경으로 들 수 있겠다.

오래전 나라

몇해전부터 급속히 사회에 유행어를 부상하면서 우리에게 한숨과 격정을 안겨 주었던 광고정동 ‘오렌지족’. 그들은 황금만능주의가 팽배된 사회 분위기속에서 황태자로 일컬어질만큼 생활 수준이 서민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이르렀다. 외제차나 고급 자가용이 아니면 넘볼 수가 없는 그들의 사회. 온갖 외국의 유행들을 퍼뜨리는 그들의 모습과 행동들, 그들의 이러한 모습들이 이루어 제약을 없이 노출되고 있어 청소년들이나 젊은 층의 동경심과 모방심리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 외제를 타고 입고, 마시는 것을 아무 꺼리낌없이 하는 그들의 모습속에서 어쩌면 외산담배를 피우는 것이 당연한 것이리라.

무분별하고 도파성이 짙은 유행

옛적에는 어떤 사람이 유행을 갔다할은 누구에게나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 있었고 자랑이었으며 또한 진짜 화업을 통한 자신의 일부 전진을 위한 유행이었

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유행의 규제가 완회되면서 돈만 있으면 갈 수 있는 유행이 되어 자질이 떨어지거나 팔기나에 상관없이 있는 집안 자제라면 누구나 해외로 날아가는 실정이 되었다. 그러나 해외의 무분별한 정책의 결과가 엄청난 비극으로 나타났다.

옛그제 자식이 부모의 유산을 노려 부모를 무자비하게 살해한 정말 끔찍한 소식을 접하며 우리는 탄식과 분노로 머리를 보냈다. 심지어 내 자식도 저러는 것은 아닐까란 생각에 자식을 두려운 눈으로 바라보기도 했을 것이다. 유학생활에 적응을 못하고 도박판에 뛰어들어 돈다 날리고 돌아와 부모에게 대들다 맘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권을 거부해 버린 자식.

단지 그 한사람의 경우만은 아니리라. 외국들이 들어 따라갈수 없는 그들의 생활에 자신을 맞추려하니 무리이고 그러다보니 자연히 찾아가는 곳이 도박판이요, 고국에 돌아와서 외국들은 먹고도 한국들은 안맞고, 유학이라는 의미와 옛날의 부러움의 대상으로 아직까지 남아 있는 거라고 으스스대는 그들의 손에 국산품이 어울릴리 없다. 진정 화업을 위해 유행을 떠난 사람들까지 유혹해가고 외국에 나가 우리나라를 망신 내시키고 돌아와서는 패륜아가 되는 이러한 있는 집안 자제들이 또한 주범이라 하겠다.

음성적 외래 문화 수용

“우리나라는 일본문화 수용을 고려할 시점에 왔다.” 우리나라의 고위 관직자(주일한국대사)가 내던진 말이다. 그 사람의 진심에서 우리나라는 말인지 아니면 한 순간의 실수로 한 말인지는 모르겠으나 총격이 아닐 수 없다. 그후 며칠이 지나 해외의 통신 서비스 컴퓨터에는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고 한다. 그 주제는 일본 문화 수용을 어떻게 바라보는 거고 여기에 청소년층부터 청장년층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쏟아졌다. 긍정적 입장과 부정적 입장의 차이는 분명했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일본문화, 일본문화, 일본 잡지, 일본 장난감을 보고 자라왔다. 지금의 일본 문화 수용의 입장은 당연한 것이다.”... “아직까지도 안공이 가지지 않았는데 심지어 그들의 문화를 수용할 수는 없는 일이다.” 이 두가지가 찬반 양쪽의 대표적인 의견이었다.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일반적 무질제하게 외래문화가 침투하고 있는가란 것이고 또 하나는 이미 음성적으로 침투하여 우리의 청소년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차라리 공식적으로 개방해버리자라는 주장들이 심심치 않게 사회의 고위층에서 튀어나와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국내 36년의 악몽을 잊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자주 불꽃 기어나오는 일본 고위직 인사들의 만원을 그리고 보상을 하면서 우리의 선조들의 입장을 완전히 무시해 버리는 그들이고 보면 일본 문화 개방에 찬성의 손을 든 사람들의 외산에 의문을 던질 수 밖에 없으며 숙명론을 펼치는 사람들의 안일함을 칭찬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조사대상 1백명중에서 2차적인 배경을 묻는 질문 결과 거의 대부분의 응답자(89명)들이 부유층 자체들의 행태를 배려할지 못한 우리 사회를 그 배경으로 응답했다.)

외제 선호를 불러 일으키는 2차적 배경

2차적 배경으로는 우리 담배의 질적 문제점과 그 판매상의 문제점을 들 수 있다.

판매상의 문제점

담배 자판기는 외산 담배를 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설이다. 서울 시내(아니 변두리라도 마찬가지다)이따를 가든지 우리는 손쉽게 담배 자판기를 찾을 수 있다. 청소년들의 외산 담배 선호를 문제삼아 기사 거리로 방송사에서 가끔 방송할때 항상 거론되는 것이 자판기이다. 자판기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것은 지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깨닫는 것이다. 자판기에서는 아주 손쉽게 누구의 간섭도 없이 외산담배를 구매할 수 있다. 담배 가게에 들어가 외산 담배를 사려면 양심에 꺼리낌이 작게나마 생겨 다른 담배로 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담배 가게에 들어가 외산 담배를 사려면 양심에 꺼리낌이 작게나마 생겨 다른 담배로 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담배 가게에 들어가 외산 담배를 사려면 양심에 꺼리낌이 작게나마 생겨 다른 담배로 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담배 가게에 들어가 외산 담배를 사려면 양심에 꺼리낌이 작게나마 생겨 다른 담배로 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광고에 있어서도 외산담배의 광고에 비하면 지천으로 차이가 난다. 어느 곳을 가나 손쉽게 눈에 띄는 외산 담배 광고에 비하여 국산 담배에 대한 광고는 어쩌다 한번씩 볼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널리 있는 자판기속의 외산담배, 그

리고 어느 곳에서나 쉽게 접하는 외산담배에 대한 광고 이것은 무시할 수 없는 판매상의 좋은 조건이 아닐 수 없다.

담배의 질적인 문제점

우리의 인식이 원래부터 그러하다고는 볼 수 없겠다. 흡연자들의 입에서 종종 나오는 얘기속에는 우리 국산 담배에 대한 강한 불신감이 많이 깃들여있다. 담배의 양이 덜 차있다는니 질 떨어지는 원료를 쓴다는니 하는 말들이 나온다. 우리의 속담에 아니편 글썽에 연기나라란 말이 있듯 이러한 불신감이 어디선가 흘러나온 믿을 만한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이 아니었다면 생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본다. 실제로 그런다고는 믿고 싶지 않으면서도 어딘가 작게나마 자리잡고 있는 이러한 불신감들이 우리의 담배 선호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2차적 배경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이 크게 두가지로 나타났다. 첫째는 판매상의 문제점(37명)을 들었고, 둘째는 우리 담배의 질적인 문제점(52명)을 들었다.)

대응방안

그러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응 방안으로 무엇이 있는가.

1) 우선 신뢰를 줄 수 있는 담배를 생산해야 한다. (12명)

“국산 담배는 잘 팔리지 않는다”는 말이 오래전부터 있어왔지만 쉽사리 사라지지 않고 있다. 그런 말이 나오는 원인은 무엇인가. 바로 한개피에 들어가는 담배재료가 양이 부족하다거나 아니면 원재료의 질이 떨어진다든 얘기밖에 되지 않는다.

이러한 불신들이 우리나라의 흡연자들의 입에서 사라지지 않는다면 우리 담배의 판로는 황막한 사막을 걷는 것처럼 대책이 없게된다. 고로 우리 담배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바꿀 수 있도록 담배 제조 공정상에서의 신뢰를 쌓아야 한다.

2) 자판기의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 (23명)

자판기의 종류는 국산만을 파는 것, 국산과 외산을 혼용하여 파는 것, 외산만을 파는 것까지이다.

외산이나 국산담배 하나만을 파는 자판기에 비해 국산과 외산담배를 같이 파는 자판기가 대부분이다. (국산만을 파는 자판기: 4/20(대), 외산만을 파는 자판기: 1/20(대)), 국산과외산을 같이 파는 자판기: 15/20(대))

일찍 보아 국산만을 파는 자판기의 수가 외산만을 파는 자판기의 수보다 많다고 해서 신각성을 떨어주는 것 같지만 문제는 국산과 외산을 같이 파는 자판기에 있다. 표3에서 보는 것처럼 국산과 외산담배의 비율이 보통 1:2 또는 1:3에 가깝다.

외산담배의 수가 훨씬 많은 것이다. 아무런 간섭이나 눈치를 받지 않고서도 구입할수 있는 자판기에 이렇게 우리의 국산 담배보다는 외산담배를 더 많이 비치해 주는 것은 마냥 속수무책으로 외산담배의 판매에 날개를 달아주는 꼴밖에 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자유분방한 젊은이들이 아니라 청소년들에게 외산담배에 대한 선택의 폭을 넓혀주고 있다. 더군다나 담배 자판기는 한국 담배 인삼공사와 한국 담배 회사에서 관리하는 것일 뿐이고 있다. 자판기에서 먼저 외산 담배의 판매에 관한 규제를 더 강화하지 않는 한 국가가 앞장서서 외산담배의 판매를 돕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자연스레 유추될 것이다.

3) 솔 생산량을 늘려야 한다. (7명)

작년 담배의 가격 조정때 대부분의 담배가격이 인상되었지만 솔 하나는 가격이 25%라는 엄청난 비율로 인하되었다. 하지만 내린만큼 사람들이 담배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일수 있다는 기대와는 정반대로 서울시내 어느 가게나 자판기에 가보아도 솔을 시키면 하늘의 별따기만큼이나 어렵다. (조사대상 20군데의 자판기중 3군데에 솔을 비치해 두었은 뿐이고 다른 종류의 담배는 다양한 디자인으로 여러개 진열되어 있지만 솔은 오직 하나뿐이다.) 판매량이 발표된 신문 기사와 내용을 보니 솔의 생산량이 준 것은 아니다. 그러면 솔은 어디로 갔는가. 시골이란다. 무슨 이유에서인지도 모르겠지만 시골 흡연가들을 겨냥한 상품으로 전락했다는 말인데 이것이 담배맛의 고급화를 지향하기 위해서라면 분명 오만이다. 솔을 즐겨 찾는 흡연인구가 많다. 당연히 솔의 생산량을 더 늘리고 질을 높여 시골뿐 아니라 서울이나 대도시에도 판매를 해야한다.

4) 광고비를 늘려야한다. (23명)

서울시내 어느 가게를 가든 외산 담배를 파는 가게라 하면 외산담배 광고가 붙어 있지 않은 곳을 찾기가 힘들 정도이다. 심지어는 가게 간판과 함께 멋있게 디자

인된 광고 간판까지 보인다.

또하나 우리의 담배를 위협하는 요인은 외산 담배 회사의 판촉활동이다. 담배한갑에 라이타를 서비스로 그냥 준다든가 질이 떨어지는 담배를 교환해 준다든가 하는 철저하게 소비자를 겨냥한 판매 전략이 눈에 띄게 실시되고 있다. 우리의 경우는 어떠한가. 이제야 겨우 클로리의 판매를 위해 광고와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하니 뭐처저도 별써 수입보는 뭐처저었다. 지금부터라도 철저하게 소비자를 위한 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5) 다양한 선택권을 주어야 한다. (9명)

이러한 경우를 생각해 보자. 자판기에 300원짜리 10개피들이 88이 판매되고, 솔이 질적인 발전을 거듭하여 300원으로 가격조정이 되어 자판기에 진열되어있다. 과연 이렇다면 경제적으로 안정되지 못한 젊은층의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 어쩌보면 국산 담배의 가격조정이후 외산과 국산담배의 가격이 별반 차이가 없게 되었다. 가격의 차이가 심하지 않다면 외산을 피워볼만하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된다. 이러한 선택의 갈등에 앞의 두가지 상황을 더 보았다면 국산담배의 판매량은 지금의 수세를 모면할 수 있다고 본다.

6) 담배 포장의 디자인이 산뜻해져야 한다. (15명)

국산담배와 외산담배의 포장을 보면 디자인이 훨씬 달라진다는 느낌이 든다. 항상 사람들은 유혹당할 수밖에 없다. 되어 있는 것처럼 산뜻하고 화려한 외산 담배에 비하여 아직까지도 단순하고 고리타분한 느낌만을 주는 국산담배의 포장이다.

또한 견고성에서도 차이가 난다. 호주머니에 넣었다 몇시간후 빼보면 부러지거나 찌그러진 경우가 있다. 우리의 담배 디자인이 산뜻하게 바꾸고 포장을 견고하게 제작하는 것이 또 하나의 방안이라 할 수 있다.

7) 한국담배인삼공사와 전매청을 민영화하여야 한다. (18명)

가장 많이 안되는 정부의 정책이 있다. 정부가 앞장서서 담배를 파는 것이다. 이것이 과연 올바른 정책이란 물음에 백이면 백 고개를 기웃거린다. 결론은 이미지가 될 수 없으며 국산 담배 판매에 하나의 약점으로 작용한다. 정부가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 데 앞장서는 이미지를 보이는 것이 그것이요 또한 여기서의 경쟁을 통해 질과 서비스 개선을 이끌어 내으로써 우리 담배에 대한 판매고를 높여야 한다.

8) 가장 중요한 것은 의식의 전환이다. (10명)

국민의 의식이 올바르게 정립되어 있고 우리 제품에 대한 신뢰도가 제아무리 높아도 획기적인 보완이 없다면 우리의 판매 전략에 아무런 필요성이 없듯 아무런 품질이 좋고 서비스가 좋더라도 국민들의 의식이 올바르게 서지 않는 한 실효성이 없다는 것도 당연한 이치다. 어렸을때부터 우리들의 것을 애용하고 믿고 선택의 폭을 넓혀주고 있다. 더군다나 담배 자판기는 한국 담배 인삼공사와 한국 담배 회사에서 관리하는 것일 뿐이고 있다. 자판기에서 먼저 외산 담배의 판매에 관한 규제를 더 강화하지 않는 한 국가가 앞장서서 외산담배의 판매를 돕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자연스레 유추될 것이다.

맺으며

20대 젊은층의 외산 담배의 선호는 우리 사회가 만들어 놓은 환경 즉 교육적 환경과 외제품에 대한 정책적 관리 소홀, 그리고 소수의 수많은 기성세대들의 때문은 사고들에 의해 발생한 필연적인 현상이라 하겠으며 누구의 책임이나에는 특별히 그 주체가 따로 있을수 없겠지만 굳이 책임을 지룬다면 젊은층의 올바른 교육과 환경을 제공하지 못한 우리 사회의 책임이라 하겠다. 이 문제를 단순하게 담배 하나의 품목에 한정시킨다는 것은 허술한 것이라 보며 이 문제는 우리사회와 전반적인 문제이며 전체적인 우리 담배 산업의 문제인 만큼 단순하게 몇몇 사람의 논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밀하고 계획적이며 지속적인 소비자들의 접촉으로 발전적인 방안을 내 놓아야 하겠다. 이러한 하나하나의 문제점 해결을 시작으로 우리 사회에 깊숙히 뿌리박혀 있는 사치풍조와 거기에 덧붙은 외제 선호 사상의 뿌리를 완전히 적절하여야 한다. 신토불이의 정신을 잊어서는 아니 될 중요한 시기라는 것을 명심하고 젊은 층을 나무라기 보다는 국민 각자 한사람 한사람이 솔선수범해야 할 때이다.

전성구 (공과대 4333)

본교생 1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기초로했다. 설문문항은 총 8문항이었으나 조사과정과 편집과정에서 중복된 문항은 제외하고 설문조사 결과를 단계별로 정리했다.

(표1) 외산담배의 국내 시장 잠식 추이

Table with 5 columns: 구분, 연도, 92년도, 93년도, 비고. Rows include 판매량, 판매액, 점유율, 판매액(비율) and their respective values for 92 and 93 years.

(표2) 미국과 일본의 국내 담배 시장 잠식 추이

Table with 5 columns: 국가, 연도, 92년도, 93년도, 비고. Rows include 미국, 일본 and their market share percentages.

(표3) 질문1 외산담배 선호를 부추기는 1차적 배경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에 대한 응답

Table with 3 columns: 응답, 응답, 비율. Rows include '부유층의 파다한 소비성향' (89명, 89%), '무분별한 외래 문화 수용' (9명, 9%), '기타' (2명, 2%).

(표4) 질문2 외산 담배 선호를 부추기는 2차적 배경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

Table with 3 columns: 응답, 응답, 비율. Rows include '질적인 문제점' (52명, 52%), '판매상의 문제점' (37명, 37%), '기타' (11명, 11%).

(표5) 자판기 담배 판매 현황(잠실, 삼전, 송파동 일대 20군데)

Table with 5 columns: 장소, 광고, 국산/외산(갑), 국산/외산(%), 비고. Lists various locations and their cigarette sales statistics.

취업특강안내

'95년 2월 졸업예정자 및 재학생의 취업준비를 위한 특강을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학생들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 1. 일시: 1994.9.13(화) 14:00-17:00
2. 장소: 동국관 L301
3. 대상: '95년 2월 졸업예정자 및 재학생 전체
4. 내용: 취업에 따른 제반 준비요령 (제출서류작성법, 면접요령, 채용경향, 기타취업정보)
5. 주최: 학생처 취업과
6. 기타: 당일 취업관련자료집을 배부함

학생처장

신입 위원 모집 공고

본 학생복지위원회에서는 복지 동국을 함께 만들어 갈 신입위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모집분야: 선진국, 생활문화, 사무국 각 부서
2. 모집인원: 7명
3. 자격: ①본교 재학생(12학년 환영) ②늦은 귀가 가능한 학우 ③봉사 정신이 투철하고 성실한 학우
4. 제출서류: 학생복지위원회 사무실
5. 제출처: 학생복지위원회 사무실
6. 기간: 1994년 8월22~26일 오후4시
7. 기타: ①컴퓨터 조작이 능한 학우 ②수습기간 있음 ③자세한 사항은 사무실(265-0723, 구내 3681)로 문의

제10대 학생복지위원회

인터뷰

시민

제5차 범민족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2만여명의 학생, 노동자, 시민들은 14일 오후 서울대로 모여들고 있었다.

서울대 정문 주위는 어느새 학생과 깃발로 넘실대고 있었고, 더위를 피하려 관악산에 온 시민들이 자리를 함께 했다.

이중 정문에 붙어있는 '전남대 김일성 분향소 조작 사건에 대한 대자보를 읽고 있는 시민 한분을 만나 보았다.'

- 전남대 김일성 분향소 설치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 조작이 있었을거다. 만일 분향소 설치가 사실이라면 학생들이 사리판 단없이 무모한 일을 저지른거라고 밖에 생각이 안된다. 그러나 그런 엄청난 일을 학생들이 했다고 생각지 않는다.

- 범민족대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장소가 어디이든 정부가 막아도 어떻게든 치뤄지지 않느냐. 방법이 다소 문제가 있다고 보지만 대중적인 통일운동이라 여겨진다.

- 범민족대회에 대학생들이 주된 역할을 하는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요즘학생들이 어떤데...압구정동이다. 뭐다 돈을 뜯어서 쓰고 심지어 부모까지 해치는 판인데...

학생

범민족대회 이틀째인 지난14일 학생들의 열기로 달아오르는 윤지로 인구역에서 선전전을 하고 있는 조흥신 학우를 만났다.

-어제는 어떻게 하루를 보냈는지.  
= 오후에는 강변역에서 구의역까지 달려가 집회를 하고 저녁때 학교로와 결의대회에 참가했다.

- 범대회에 참가하게 된 계기는  
= 민간주도의 통일운동 발전을 나로부터 시작하고 그것이 곧 우리나라의 진정한 통일로 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범대회에 참가했다.

- 범대회에 참가하면서 가장 힘든 점은  
= 나 자신이 내 할 도리를 다하고 있는지에 대해 반성을 할때가 가장 힘든 시간이다.

- 주로 어느 분야에 참가하는지.  
= 나는 주로 문화활동쪽으로 범대회에 참가하고자 한다.

- 범대회에 참석한 학우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 민간주도의 통일이 되어야한다는 피상적 감상주의보다 나의, 민족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생활화하면 좋겠다.

전경

범민족대회가 끝난 16일 오후, 그때까지도 삼엄한 경비를 하고 있는 남부경찰서에서 전경2명을 만나보았다.

- 이번엔 전경은 몇명이나 다녔는지.  
= 혹시 신문됐는지 모르겠는데 신문에는 우리가 1백여명 부상당한 것으로 나와있다. 하지만 실제는 다르다.

15일 새벽경우 후퇴머리가 깨져서 온 동료1명을 경찰병원으로 데려다줬는데 입원실이고 복도고간에 온통 부상자였다. 한 3백명, 내가 본것만 3백명은 족히 넘는다.

- 전경생활은 어떤지.  
= 진짜 할것 못된다. 방패를 들고 진압나기엔 위로 돌이 오고, 방패를 위로 들면 밑으로 돌이 오고, 그래도 낮은 편찮은 편이다. 밤이 되면 하늘엔 화염병이 불덩이로 보이고 돌은 보이기도 않고, 앞에서는 쇠파이프가 번쩍거린다.

지난 6월에도 동료1명이 진압하다가 발목이 부러져 불명예로 제대했다. 될수있으면 전경은 안 하는것이 좋다.

- 요즘 대학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요즘 대학생? 나도 대학교2년다 니고 전경으로 왔다. 대학 다닐때는 생각이 몇번 데모도 했었지만 요즘은 생각이 달라졌다. 같은 대학생인데 왜 그리 부끄러운지... 젊은이의 패기도 좋지만 너무 심하지 않는지 한번쯤 생각해볼걸 비탈뿐이다.

# '94 범민족대회

## '공안태풍에도 통일바위 우뚝서다'



◇ 통일분위기 조성에 박차를 가하며 국토순례를 마치고 돌아온 국군단 환영식이 지난 14일 서울대 본대회장에서 열렸다.

제5차 범민족대회가 지난 14,15일 양일에 걸쳐 서울대 교정 곳곳에서 학생, 시민 3만여명이 모인 가운데 열렸다.

당초 13일부터 건국대, 목석 등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이번 행사는 행사장 원천 봉쇄 등 정부당국의 저지가 심해짐에 따라 부득이 장소와 시간을 일부 수정하여 진행됐으나 행사가 진행중인 13일 오후와 14일에도 경찰측의 무리한 진압이 계속됐으며 범추본의 대회장향과 맞서 범대회기간중 1백20여명의 학생, 전경이 부상을 당하는 불상사를 빚기도 했다.

13일, 동총련 서부총련 등 서총련 소속 학생 5천여명은 지하철2호선 강변역에 오후5시경 집결, 구의역까지 범대회진압을 규탄하는 평화행진을 벌이고 건대진입을 시도하였다.

구의역에서 전경과 40여분간 대치하던 중 최루탄 등을 쏘며 진압하는 전경에 20여명의 학생들이 강제연행되어갔으며, 나머지 학생들은 50여미터 후퇴해 1시간여 시위를 계속하다 7시경 자진해산 했다.

이후 명동성당 등 시내곳곳에서 선전전을 벌인 학생들은 분교, 고려대등 5개 학



◇ 신공안정국을 불러일으키며 범민족대회 원천봉쇄에도 불구하고 14, 15일 양일간 서울대에서는 '제5차 범민족 대회'가 개최됐다.

교에 분산 지역별로 범대회 사수대회를 가졌다.

한편 이날 상경한 남총련 소속 학생들은 상경도중 전경들이 최루탄과 돌맹이로 상경을 저지했으며 곳곳에서 검문을 했다고 전했다.

14일 오후 지하철을 이용, 경찰의 감시망을 혼란시킨 학생들은 5시경 서울대 인구역(지하철2호선)에 내려 2~3킬로미터를 뛰어 서울대에 집결했다.

서울대 본관 앞 잔디광장에 중앙무대가 마련되고 첫 행사인 범대회 개막식 및 국군단 환영식이 사전문화행사에 이어 시작될 줄 폐포프를 앞세운 전경들이 대회 저지를 위해 대회장 50여미터 전까지 진입했다.

그로인해 대회개회선언만 마친 채 행사가 중단되었으며 이후 11시까지 도서관 뒷산으로 대열을 이동하고 급하게 꾸러진 사수대가 학내에 진입한 경찰과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다.

경찰이 교문밖으로 나간 뒤에 다시 행사는 진행됐다.

15일, 통일문화한마당이 새벽1시30분부터 2시간여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노래마, 꽃다지 등의 공연과 며칠 전 전개한 이범영 한청련의장 추모시낭독이 이어졌다.

행사는 '총세상의 공연 '견우와 직녀'로 절정에 이르렀으며 한반도의 통일을 기원하는 내용을 쉽게 표현해 관객들의 박수 감사를 받았다.

새벽4시30분부터는 범청학련 통일추진인 제7회 한국대학생 통일노래한마당이 열려 대학생들의 통일을 염원하는 마음을 마음껏 뽐냈다.

같은 시각 노천극장에서는 노동자 통일

취재낙수

3군 합동 작전

0...경찰 드디어 3군합동으로 진압?

학생들이 지난 15일 폐막식을 시작하자 경찰은 헬기를 띄워 공중에서 최루액을 살포, 행사를 방해했다.

지난 14일 밤 정문을 뚫고 들어왔다가 밀려나간 경찰이 헬기 5대로 손쉽게 식을 방해하자 학우들 악이 오르면서도 경찰의 지모에 감탄.

이는 87년 이후 학생시위에는 쓰이지 않았던것이라고.

행사에 참가한 한 학우 헬기를 보더니 "어제는 육군이, 오늘은 공군이 행사를 방해하니 한강에 군함만 띄우면 육해공 3군합동작전이 되겠네"라며 격분.

주객 전도

0... "동국인은 집회를 싫어해?"

지난 13일 우리 학교에서 열린 서남총련 범민족대회사수 결의대회에 주객전도란 말을 실감나게 해.

이유인숙 대회장을 제공한 우리학교 교우들은 결의대회에 참가하지 않아 각대학별로 결의를 한뒤 맨 나중 우리학교순서가 되었는데 아무도 나와서 결의를 하지 않았다고.

사회자가 애타계 동국대를 찾았으나 목록부담.

집회에 참가한 타학교 학우 이를 보고 "동국대 학우들은 장소빌려주는 것은 좋아하고 집회참가는 싫어하는 모양이죠?"라고 한마디.

동약의 풍경

0... 범민족대회 서남총련 집회가 있던 지난 13일 밤 동약의 풍경은 한마디로 엉망이었다고 전하는데.

집회에 참석한 학생대수는 불상 주변에 처놓은 철책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들어가 하루밤을 보내는 좋지 못한 모습을 보였다.

이무리 잘 모르는 타학교 학생이지만 경우에 맞는 어느 정도의 생각과 행동은 있어야 하지 않았는가 하는 아쉬움이 남는 듯.

신(幸) 공안정국?

0... 지난 15일 오후1시20분쯤 범민족대회가 열린 서울대 본관 앞 잔디밭.

갑작스런 헬기의 출현. 저공비행 학우를 환호성 갑자기 헬기에서 붉은 황색가루 살포 학우들의 환호성은 순식간에 과성으로.

순간 본관안은 아수라장 헬기, 황색가루 및 최루액 뿌리기를 수차례 반복.

'정말로 신(幸) 공안정국인가?'

김밥아주머니의 눈물

0... 전시를 연상케하는 범대회 탄압이 무고한 시민의 눈물을 흘렸다는 데.

공중을 날게 나는 헬기를 멧모르고 신기하다 울려다 보던김밥장수 아주머니가 공중에서 무자비하게 뿌린 최루액을 직격으로 맞아 눈을 다지고 쌓아둔 김밥에까지 최루액이 흘러든 것.

결국 아주머니는 학생들의 치료를 받으며 따가운 눈과 멧쳐버린 김밥때문에 몇시간 울어야 했다고. 정부는 쌓여간 가는 백성들의 원망을 어떻게 감당할런지.

범민족 회의

### 범추본, 남북정상회담축구 결의문 채택

### 경찰 강경대응...대의원 73명 참가

지난 15일 범민족대회장소인 서울대에서는 배다지 범추본 상임위의 사회로 10시경부터 '범민족 회의'가 시작됐다.

2백98명의 대표중 73명만이 참가하여 성원부족이라는 악조건속에서 진행되었다.

7월3일 범추본 결성에서부터 북-해외동포 접촉 불허로 인해 남북체제로 분산 개최 결정, 13일 범민족대회 연기까지의 경과보고는 회의장 분위기를 자못 경건하게 만들었다.

범추본은 "범대회 강경대응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은 수가 참가하여 각계각층에서 참석하 가운데 치뤄져 내실을 기할 수 있었다"고 기조연설을 통해 밝혔다.

그러나 정부는 예전의 군사독재정권과 별반 다를바가 없다는 실랄한 비판이 뒤따르기도 했다.

"이제 통일은 국제정세 변화속에서 밖에 바라볼수 없는 역사적 대세이며 반 통일세력은 역사적 평가를 받을 것이다"고 말하며 이번 대회의 비합법성여부는 후세에 밝혀질지 기대한다고 기조연설을 마쳤다.

뒤이어, 범민족대회 결의문, 북과 해외



통노한 '애국의 씨앗' 민족대단결상 수상

15일 새벽 4시, 제5차 범민족대회가 열리고 있는 서울대 본관 앞 '총장잔디'에서는 계속되는 노래와 함성으로 축제 분위기가 한창 무르익고 있었다.

범청학련 통일추진인 제7회 한국대학생 통일노래한마당 (통노한)이 한총련 부문행사로 진행중이었던 것이다.

전국8개 지역에서 12명이 참가하여 열띤 경연과 또한 그전날 오후 서울대로 진입한 후 계속 자리를 지키고 있어 있던 2만여명의 학생들의 호응으로 행사장은 커다란 물결기를 형성하고 있었다.

첫 두곡이 끝난후 한총련의장 김현준(부산대 총학생회장)은 학생들의 요청에 의해 "그대 오르는 언덕", "하나의 민족, 하나의 조국"을 열창해 학생들의 탄성을 자아내기도 했다.

한편 입상노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민족 대단결상(울 한해 한총련을 대표하는 노래)=애국의 씨앗(인천대 노래장시)

△기백상(용기백배의 힘을 주는 노래)=통일의 새날을 향해(서총련 상명여대 창백)

△예술상(청년학도의 정서를 예술적으로 형상화한 노래)=부활의, 진달래(부경총련 부산의대 나와나는)

△단결상(확실한 준비와 조직적 참여로 청년의 대오를 과시하는 노래)=통일의 꽃물들일 그날까지(남총련 조선대 경성대 노래패)

△청년상(푸르른 청춘의 기상이 돋보이는 노래)=문민총각(남총련 광주대 노래일꾼)

△대중상(대중에게 쉽게 다가가고 함께 하기 위한 노래)=자주통일의 한편출모(서총련 국민대 세남) △모범상=염삼이 소리통(전북총련 원광대 뚝지기)

제5차 범민족 대회 특별 취재반

- 이유리 기자
- 곽주영 기자
- 양수정 기자
- 허동혁 기자
- 박대용 기자
- 문수정 기자
- 이수훈 기자
- 안은실 기자

# 퇴임교수 인터뷰

30여년을 교단에서 애쓴 공로로 '퇴임'이라는 명예를 안게 된 11명의 교수. 이분들을 만나 퇴임의 소감과 앞으로의 계획 등을 들어보았다. 최익한 교수 등 5명의 교수는 개인 사정으로 부득이 인터뷰를 하지못해 프로필만 적었다. (편집자)



전영화(미술학)교수

## “이제부터가 시작이지...”

“세월이 참 빠름을 느껴. 그리고 이제부터가 시작이지”라며 퇴임소감을 짧고 힘

## 신근재(일어일문학)교수

### 15년 역사와 함께한 경주캠퍼스의 산증인

연구실에 방문했을때, 신근재(일어일문학)교수는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마음이 사무치는 느낌이 한이없지만 이 학교 1기생 교수로, 15년이지만 내가 산 역사인데... 79년 이 건물을 지을때 삽질도 했었지...” 연신 웃으며 떠남의 아쉬움을 감추려 했다. 30년 6개월, 반은 서울, 반은 경주에서 반평생을 본교와 함께 하며 일본학과, 인문대학장, 부속유치원 건립 추진위원장, 일본학 연구소장을 역임했다. 국악예술고교에 3년간 교장직도 하던 장한 본교를 떠날적도 있지만 3년이면 서당개 풍월을듯 판소리 정도는 들을줄 안



김장호(국어교육)교수

## 늘 산과함께 하고픈 시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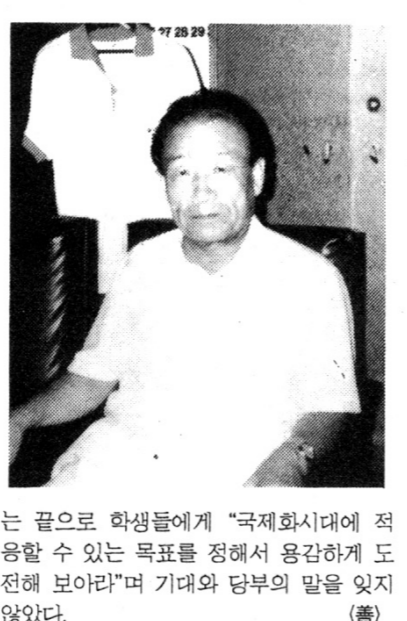
“어버이를 여의고 나는/내게 지붕이 없어졌다고 느꼈다... 골목마다 책갈피마다/아, 신영로 달아오르던 나날. 문득 머리 위에 덮여오는/지붕. 눈이라도 퍼부를 것같은 풍짓달 산그늘을/시나브로 흔들리는 우듬지의 바람으로/늑속 숲을 헤치고 손톱밑을 헤집고... 도시 어디를 헤매다가 이제 오느냐/그제사 눈을 비비는 나를 끌어안고/소리치는 산이 있었다. 북한산 “한국명산기에 실린 것으로 김장호(국어교육)교수가 북한산을 바라보며 읊은 시 한수이다. 인수를 처음 오른해로 쳐도 37년의 세월이 흘렀다는 김교수는 전 대한산악연맹이사, 77년엔 예베스트 원정 훈련 때 대장을 했을 정도로 산에 대한 열정은 시를 쓰는 것 못지않다. ‘산은 나로 하여

차게 밝히는 전영화(미술학)교수. 고등학교 교직생활로 시작하여 본교 미술학도가 창설된 71년부터 동아에 몸담았던 전교수는 오는 31일 곧 24년간의 정근 교정을 떠나게된다. 힘써 가르친 제자들이 국내외적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데에 대해 교직생활의 큰 보람을 느낀다는 전교수에게서 제자사랑의 각별함을 느낄 수 있었다. 전교수는 “어릴때는 고향에서 농사짓고 살려고 했었지. 근데 중학교 때부터 미술대회에서 상도 자주타고 주위사람들 칭찬도 대대했어. 그래서 자연스럽게 미술을 전공하게 된 거네”라며 미술을 전공하게 된 동기를 밝힌다. 대학 3학년말까지 서양화를 공부하다 철학적이고 신비한 동양적 산수에 매료되어 동양화로 바꿨다는 전교수는 국제전람회 등을 통해 외국에서도 극찬을 받은 수묵화법의 대가이기도 하다. “내가 가졌던 많은 전시회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세계인데, 71년 동경에서 있었던 국제자유미술초대전은 그야말로 성황을 이루었지. 91년 뉴욕의 세계적 화랑거리 Soho에서의 초대전은 우리나라

다며 농담섞인 어조로 자랑한다. 생활신조가 ‘선공후사’인 신교수는 88년 국민교육헌장선포 20주년 기념 문교부장관 표창장 수상, 90년 본교 10년 근속상 수상으로 보아도 그의 성실함을 엿볼 수 있다. 수석수집, 등산이 취미라 산악부, 수석지도교수였던 신교수는 특히 남성적이고 힘이 큰 지리산을 좋아한다며 몇개 정취 있는 산을 소개하기도 했다. “일본을 한마디로 단정짓기 어려우나 지리적으로나 우리나라와는 속명적관계이므로 피상적으로만 아는 일본을 우리는 제대로 알아야 하고, 공을 앞세울줄 아는 것과 투철한 질서외식은 배워야 해”라고 한 신교수는 일본에 대한 편견을 바로잡기 위해 ‘일본사회의 구조’등을 저술했다. 본교의 학력증진과 내실을 기하기 위해 8천5백여권의 책을 기증하고는 퇴임후 일본 동경대 객원교수로 갈 예정인 신교수

김 시를 쓰게 하면서 또 시를 못쓰게 한다는 말에 그의 행복한 고뇌를 엿볼 수 있었다. “한국명산기를 비롯 나는 아무래도 산으로 가야겠다, 너에게 이르기 위하여, ‘북한산 바람’ 등의 저서는 산타기와 글쓰기가 그의 생활속에 조화를 이룸을 느끼게 한다. 늘 산과 함께한다는 김교수는 그래서 산처럼 엄한지도 모른다. 그를 말하는 이들은 한결같이 “엄하기로 치면 아마, 동국에서 제일”이라고 입을 모으면서도 “자신에게 엄하기에 타인에게 엄할 수 있음”을 덧붙인다. 그가 스승의 덕목중 하나로 엄함을 꼽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재직기간동안 사범대학장, 교육문제연구소장, 한국문화연구소장을 지내기도 하고 한국문인협회 이사, 한국시인협회 심의위원을 거치기도 한 김장호교수는 아직도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고 “학문을 완성하지 못한 점, 제자를 하나하나 다독이지 못한 점...” 은화하고 부드러운 인상이 동양에서 느껴진다는 말을 많이 들어왔다는 김교수는 동국인에게 남기고 싶은 말도 또한 그러하다. “부처님은 걸으려는 너그러워 보이나 그속엔 무서운 인내와 자제력을 지녔을것”이라며 “드러나는 부드러운 위에는 엄격한 자기관리가 필요하다고. “글쓰고 산에 가는 것만으로도 내 생애가 모자란단다”는 김교수에게는 앞으로 한 가지 바람이 있다. 북한의 명산들을 답사해서 애초에 목표했던 1백산을 오르는 것. “한국명산기”속편이 완간될 날을 고대해 본다. (김소영 기자)

작가로는 최초의 공식초대전이였어”라며 자랑스런 미소를 머금은 전교수는 “또 지난 7월의 동아 71-94는 제자들이 내 정년을 기념해서 열어준 전시회야”하며 동약전작집을 찾아 펼쳐보인다. 국전·미술대전 초대 심사위원, I·A·A의 국제회의에 한국대표로 다수참석, 벨기에 켄트대학교 초청교수, 서울시 예술위원등을 역임한 바 있고 국전에도 다수 입선한 경력을 지닌 전교수는 현재 한국불교미술인협회의 회장직을 맡고 있기도 하다. 퇴임후 계획에 대해서는 “그동안 시간 부족으로 잘 못했던 작품과 국제기획초대전에도 참석할 예정”이라한다. 본교 미술학과와 역사와 함께 해왔고 88년 예술대학장을 지냈던 전교수는 화단에서는 인정해주는 본교 미술학과에 대한 동양내 인식수준이 낮음을 안타까워 하기도 했다. 언제 어디서나 진실하기를 강조하며 가훈이기도 한 ‘眞’, 전교수는 이 한자만 봐도 마음이 편안해진다며 남아있는 동안인에게 당부의 말을 잊지않는다. ‘삼속에서 진실하라는...’ (眞)



이종형(한의학)교수

는 끝으로 학생들에게 “국제화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목표를 정해서 용감하게 도전해 보아라”며 기대와 당부의 말을 잊지 않았다. (眞) 그중 몇몇은 후배교수들과의 불화로 명예교수 자리에 남지 못했다는 좋지 못한 소문들이었다. “명예교수 임명이 과교수회의 추천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불합리한 관행이라고 생각해. 일정 자격하에 명예교수로 채용될 수 있는 제도가 정착되어야지. 명예교수 자리 하나 얻으려고 이런 말 한다고 생각해도 좋지않... 후임 교수 채용도 과교수회의가 이루어져야만 채용이 결정되니...” 주교수는 지난 88년초 초임교수로 강의를 한 것이 인연이 때 퇴임후 일본의 제경대에서 5년간 더 교수로 일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든 강단에서의 강의가 못내 아쉬운 모양이다. 지난 62년 농경과 교수로 처음 임명된 후, 78년 농과대학장, 80년 농림과학연구소장, 82년 한국농업경제학회 회장을 역임한 주교수의 30여년 농업에 대한 애정은 농부의 그것에 못지않다. “최근 농대를 자연자원대학이니 하는 이름으로 바꾸자는 말도 많은데, 난 반대야, 시류에 영합해서 ‘농’자를 빼보자는 건데 그렇다고 농업없인 살수 없잖나” 마지막 문을 두드렸다. “시원섭섭하지 뭐” 비록 말머리에 ‘한마디로...’라는 단서(?)를 붙이기는 했어도 돌아선 시간의 묵은 기억들이 퇴임이라는 시기를 맞아 주저리 주저리 흘러나올 만도 하건만 이 한마디를 던진 주교수의 입은 좀처럼 다시 열리지 않았다. “점잖고 잘 웃는 교수, 대표적인 학구적 교수, ‘말많은 농경과 교수문제에서 한번도 어용, 무능교수 딱지가 붙지 않았던 교수’ 질문에 대한 다음 대답까지의 잠깐의 시간, 인터뷰를 준비하며 들었던 ‘소문’들을 주교수의 모습위에 비추보였다. (허동혁 기자)



최익한(의학)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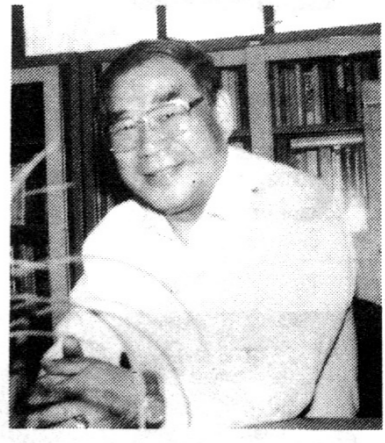
- 재직기간: 86년~94년 8월
- 51년 경북대학교 의학과 졸업
- 66년 부산대학교 의학과 의과대학 의과 박사학위 취득
- 64년~71년 부산 시립 병원장
- 75~80년 7월 보건사회부 국장
- 86년 의예과 학과장
- 86년~90년 3월 경주캠퍼스 보건소장
- 92년~94년 3월 의과대학장



이종형(한의학)교수

- 재직기간: 89년~94년 8월
- 55년 동양의학대학 졸업
- 68년~70년 3월 74년~76년 3월 대한한의학회 이사장
- 83년~85년 3월 사단법인 대한 한의사협회 회장
- 86년~89년 10월 사단법인 대한 한의사협회 이사

# 우리 가슴에 모닥불처럼 다시 피어나리니



서재근(경찰행정학)교수

## 국내 유일 경찰행정학과 신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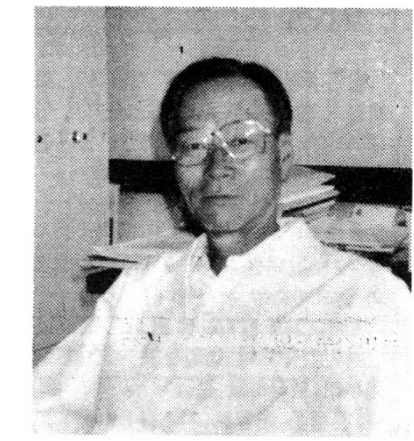
“나이 차서 쫓겨나가는 사람한테 인터뷰는 무슨 인터뷰”라며 미소짓는 서재근(경찰행정학)교수는 “지나온 17년동안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한다며 “나에게 제2의 삶인 교수로의 인생을 열어준 동국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답답하게 퇴임에 이른 소감을 밝힌다. 서교수를 만나기 위해 찾아간 공안행정 연구소내에는 각 방송국의 시사프로에 참가했던 사진들이 걸려있어 서교수가 결코 평범한 인물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었다. 서교수의 인생은 크게 두 갈래의 삶으로 나뉘어 진다. 그 첫번째로는 50년 6월25일 전투경찰에 투신한 이후 경찰국장에 이르기까지 22년간의 경찰로서의 삶이고, 또 다른 하나는 바로 교수로서의 삶이다. 내부부장관과 문교부를 통해 본교에 경찰행정학과 관련 타교에도 없는 독특한 학과

를 신설한 서교수는 “국내에서 유일한 학과인 본과에서 매년 끊이지 않고 박사학위를 받는 제자가 나오는 것이 가장 기쁜 일이다”라고 자랑스럽게 말한다. “인생은 소신있게 신념있게 살아야 한다. 외부인 특히 학생들에게 엄격하기 이전에 나 스스로에게 엄격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선 극기가 필요하다. 극기는 용기있는 생활의 기본이다”라며 자신의 인생철학을 조금도 주저함 없이 밝히는 서교수는 내부부 정책 자문위원외 위원장, 지방행정연구위원회 위원등을 비롯 사회과학대학 학장, 공안행정연구소 소장등을 역임한 바 있다. “앞으로 한 10년동안은 정신, 육체적으로 활동가능한 시기라고 보기 때문에 이 기간동안 국민정신운동등의 뜻있는 일을 위해 살아갈 것”이라고 앞으로의 계획을 밝히는 서교수의 얼굴에 문득 과거에 대한 아쉬움이 스쳐 지나간다. “마지막으로 서교수는 교수들에게는 “먼저 공적·사적인 일로 본인아니게 불쾌하게한 일이 있다면 용서를 바라고 싶다. 연구생활에 보다 정력을 쏟아 대한민국이 아닌 세계를 무대로 본교의 특성을 살려서 훌륭한 대학으로 만들어 달라”라는 그리고 학생들에게는 “노력없는 댓가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고 도전적 용기와 건설적 노력으로 대한민국을 지고 나갈 수 있는 인재가 되기를 바란다”는 당부의 말을 전한다. 매일 20분동안 기본운동으로 건강을 관리한다는 서재근교수. 매서운 눈매에 우람한 체격의 서재근교수. 인터뷰도 중 시종일관 단정하게 말하던 서재근교수. 이제 우리는 본교에서 또 하나의 커다란 별이 사라짐을 본다. (眞)

## 박수성(의학)교수

### “정말 나를 필요로 하는곳이 있다면 가야지”

“홀가분해, 떠나는 것에 대해 거리낌없어”라며 웃으며 말하는 박수성(의학)교수의 모습위로 못다한 책임을 두고간다는 안타까움을 느낄 수 있었다. 중앙대, 한림대 교수로 재직했고, 40년 만에 의과대학장으로 와서 포항병원장, 경주병원장을 역임하다 오는 31일자로 마치는 박교수는 많은 학술단체의 직책을 맡아 재직시 학교밖의 활동에도 열심히였다. “의사라는 길을 택한것에 결코 후회한 적은 없어. 힘든 것이 있었다면 보직에 매달려 내 전문분야연구에 소홀했었다는 거야”라며 전문으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했음을 아쉬워했다. 박교수의 좌우명은 ‘진실, 성실’이라고. “처음 학장으로 오셔서 지금 의대의 기초를 굳혀주셨죠”라고 말하는 주위분들의 귀뜸으로도 박교수의 좌우명을 이해할 수 있었다. “앞으로 퇴임후 활동에 대한 질문에 “먼저 쉬고 싶어 여행도 많이 다니고, 그런 다음 정말로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있다면 가야지”라고 말하는 박교수의 얼굴엔 지금이 시작이란 힘찬 모습이 비쳐졌다. (眞)



미술애호가이기도한 박교수는 틈날때마다 미술전시회장을 다니고 외국에 나기도 가장 먼저 찾는 곳은 미술관이라고. 운동중엔 골프를 즐기는데 교수님들 골프프모인인 ‘백상회’의 초대회장을 지낸바있다. 경주가 좋아서 왔다는 박교수가 바라는 것은 긴여생을 지낸 대학으로 더 많은 발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앞으로 퇴임후 활동에 대한 질문에 “먼저 쉬고 싶어 여행도 많이 다니고, 그런 다음 정말로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있다면 가야지”라고 말하는 박교수의 얼굴엔 지금이 시작이란 힘찬 모습이 비쳐졌다. (眞)

## 전호중(영어영문학)교수

- 재직기간: 79년~94년 8월
- 52년 본교 영문학과 졸업
- 70년 전북대학교 대학원 문학석사학위 취득
- 80년 본교대학원 문학박사학위 취득
- 86년~88년 2월 외국어 교육원장
- 88년~90년 3월 이부대 학장
- 89년 10년 근속상 수여



이상식(산림자원학)교수

- 재직기간: 76년~94년 8월
- 56년 본교 임학과 졸업
- 58년 본교 대학원 임학석사학위 취득
- 78년 본교 대학원 임학박사과정 수료
- 80년~82년 3월 농과대학 교학과장
- 87년 30년 근무상 수여



함덕상(의학)교수

- 재직기간: 87년~94년 8월
- 56년 경북대학교 의학과 졸업
- 65년 경북대학교 대학원 의학박사학위 취득
- 87년~91년 2월 의예과 학과장
- 92년 대학원 의학과 학과장
- 93년 경주캠퍼스 보건소장
- 93년 포항병원장

# 박사학위

◇이창숙 (철학박사) = 인도불교의 여성 성불 사상에 대한 연구 ▲41년생 ▲서울대 불어불문학과 졸업

◇이중대 (문학박사) = 김수영 시의 모더니즘 연구 ▲59년생 ▲본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94~현재 본교 강사

◇황영숙 (문학박사) = Shakespeare 희극의 Bakhtin적 카니발화 ▲57년생 ▲이화여대 영어영문학과 졸업 ▲92~현재 안동대 강사

◇유정숙 (문학박사) = Faulkner의 작품에 나타난 여성인물 연구-여성적 글쓰기의 한 시도 ▲54년생 ▲전북대 영어영문학과 졸업 ▲80~현재 전북대 부교수

◇김영숙 (문학박사) = A FUNCTIONAL TEACHING MODEL OF ENGLISH VERB NUMBER ▲55년생 ▲서울대 영어교육과 졸업 ▲85~현재 인하대 강사

◇최갑순 (문학박사) = 중국 근세 민간종교 연구-“백련교 전통”의 구성 ▲45년생 ▲서울대 사학과 졸업 ▲87~현재 한국외국어대 교수

◇박남수 (문학박사) = 신라수공업사 연구 ▲57년생 ▲본교 사학과 졸업 ▲91~92 본교 강사

◇유영숙 (문학박사) = 고려후기 선종사 연구 ▲50년생 ▲서울교대 졸업 ▲88~92 서울교대 강사

◇고성훈 (문학박사) = 조선 후기 변린 연구 ▲59년생 ▲본교 사학과 졸업 ▲92~현재 본교 강사

◇이한구 (철학박사) = Fodor의 표상주의에 있어 마음의 인과성 문제-심적 표상의 지향성과 인과성에 대한 물리주의적 접근과 그 한계- ▲54년생 ▲본교 철학과 졸업 ▲93~현재 본교 부교수

◇박노홍 (철학박사) = 주희의 수양론에 관한 연구 ▲39년생 ▲충남대 법학과 졸업

◇안병용 (행정학박사) = 한국행정개혁의 변천과정과 전략에 관한 연구 ▲56년생 ▲중앙대 정치외교학과 졸업 ▲89~현재 신홍전문대 조교수

◇안광복 (행정학박사) = 효과적 행정정보 공개정책의 요인분석 ▲56년생 ▲연세대 행정학과 졸업 ▲84~현재 국제문제연구소 서기관

◇신성섭 (행정학박사) = 한국의 과학화사정형에 관한 연구 ▲40년생 ▲국제대 법학과 졸업

# 1993학년도 후기 박사·석사학위 취득자 명단



(이상 33명)

◇김대권 (경영학박사) = 호텔 서비스 품질에 대한 소비자의 평가에 관한 연구 ▲56년생 ▲경희대 화학공학과 졸업 ▲91~현재 제주대 조교수

◇노순규 (경영학박사) = 직무특성과 조직특성이 조직투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우리나라 제조업체의 사무직을 중심으로) ▲55년생 ▲영남대 경영학과 졸업 ▲89~현재 한국기업경영연구원 원장

◇계도원 (경영학박사) = 유통경로에서의 갈등과 성과에 관한 연구-승용차 및 개인용컴퓨터를 중심으로- ▲58년생 ▲인천대 경영학과 졸업 ▲94~현재 제주대 강사

◇김영준 (경영학박사) = 한-러교역 및 투자협력에 관한 실증분석 ▲56년생 ▲서울대 의과대학 졸업

◇권승구 (경제학박사) = 1960년대 이후 한국농가경제 구조변화에 관한 연구-기계화 선진농가의 사례를 중심으로- ▲61년생 ▲본교 입학과 졸업 ▲94~현재 삼육대 교육과 졸업

◇김명숙 (경제학박사) = 1960년대 이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대전 서구 위원회 제도 운영을 중심으로- ▲61년생 ▲본교 입학과 졸업 ▲94~현재 삼육대 교육과 졸업

◇김필수 (공학박사) = 열전달 특성을 고려한 캐피터 방전 임펠서 차지기-참자요크 시스템의 설계 및 해석 ▲61년생 ▲본교 전기공학과 졸업 ▲92~현재 충청전문대 강사

◇이주택 (공학박사) = 주겨환형 민족도요인분석에 관한 연구 ▲56년생 ▲본교 졸업 ▲79~현재 본사사육전립면 부장

◇김필수 (공학박사) = 합성기공의 내력과 이력특성에 관한 연구 ▲56년생 ▲관동대 건축공학과 졸업 ▲92~현재 서인전문대 조교수

◇이주원 (공학박사) = 진공 동결건조 커피와 그 용매추출 분획물의 향산화 효과 ▲53년생 ▲고려대 식품공학과 졸업

◇이수주 (공학박사) = 어머니의 부모 역할만족도와 관련변인 ▲43년생 ▲서울대 가정학과 졸업 ▲78~현재 인하대 교수

◇김명숙 (공학박사) = 한국과 중국의 관면에 관한 연구 ▲51년생 ▲서울대 가정교육과 졸업 ▲85~현재 충청전문대 교수

# 석사학위

## <대학원>

▲류민홍 = 근대불교의 수행체계 연구

▲김관태 = 초기불교의 오문에 관한 연구

▲최광욱 = 구사론을 통해서 본 의근에 대한 연구

▲이태분 = 유식설사에 관한 연구-섭대승론을 중심으로-

▲이정수 = 불경사상의 문수신앙에 관한 연구

▲김주영 = 적의불교사대의 반고사상연구-유가설을 중심으로-

▲김지은 = 「정리적론」의 현상에 관한 연구

▲유재경 = 「종론」의 중도론 연구

▲변상섭 = 유식삼성설의 제법 및 법계 관련 연구

▲이성철 = 선사상에 있어서 저울의 비유와 상의의미에 대한 연구

▲안승준 = 대법처형의 수행체계와 교리체계 연구

▲김정민 = 황유우 시 연구-「자연송」을 중심으로-

▲변지연 = (한문소설연구)-비극적 세계 인식과 허무의향-

▲한재경 = Muder in the Cathedral에 나타난 제의성

▲손미영 = Sherwood Anderson의 Winesburg, Ohio 연구-George와 Grotzques의 심리적 대비관계를 중심으로-

▲조신숙 = The Waste Land에 나타난 부정을 통한 구원의 변증법-「Descend that ye may ascend」를 중심으로-

▲이지현 = 근대화시기 영어교육

▲김정희 = 現代日本運動詞(의)「ル一テイル」, 「一チイタ」形についての考察

▲고혜정 = 한국인의 일본어 음성교육-서울, 경성, 제주 방언을 중심으로-

▲강준 = 명목사의 근대일본성 모색에 관한 고찰

▲김성태 = 전한의 선거제에 대한 일고찰-정치적 기능의 추이를 중심으로-

▲장희홍 = 조선전기 환신 연구

▲박선영 = 삼국시대 관음보살상에 대한 연구

▲홍상철 = 해질 때의 내리에서 「정재」의 논리구조

▲윤성봉 = 왕선산 기철학 연구-「장자 정몽주」를 중심으로-

▲유형래 = 노자의 「도법자연」과 정치사상에 관한 연구

▲정남주 = 해금 최한기의 논리사상연구

▲윤보현 = 후기구조주의 입장에서 본

정신분석학 영화이론 연구 관객-주체 형성에 관한 비판적 고찰-

▲김경 = 「서편제」분석-영화담화와 관소리 담화를 중심으로-

▲이은주 = 슬래셔 영화의 장르적 특성 연구

▲전종호 = 고등학교 교육체계 개혁안의 배경과 성격에 관한 연구

▲김규림 = 환경성 대기오염의 법적 규제에 관한 고찰-중국의 황사, 산성비를 중심으로-

▲표주성 = 환경분쟁조정제도에 관한 연구

▲이종원 = 주주총회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재수 = 불법행위책임이론에 관한 연구-독일법에 있어서의 귀책이론을 중심으로-

▲김병래 = 자기주식회독규제에 관한 연구

▲이철호 = 자기결정권으로서 성전환에 관한 헌법적 고찰

▲김용현 = 북한 인민군대의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민주사변~한국전쟁 이전을 중심으로-

▲이종원 = MOSFET 전력 증폭기의 최적설계

▲장창희 = 객체지향 기법을 이용한 유닉스 명령어 번역기의 설계 및 구현

▲최혁근 = 디스크 배열의 성능 향상을 위한 동적패리티 배치 방식

▲윤화동 = 적층 계층을 이용한 무손실 이미지 압축 기법에 관한 연구

▲구성자 = EBNF로부터 구문 트리 자동 생성에 관한 연구

▲맹인재 = 정전류 인버터로 구동되는 리니어 BLDC 모터의 설계이론 및 특성 연구

▲이준철 = 양속식 가동자석형 LDM의 위치제어계구성 및 특성해석

▲김원배 = 동물세포배양에 의한 수두 바이러스 대량생산에 관한 연구

▲김성주 = 열기성 미생물의 Comatabolism을 이용한 염소계 폐놀류의 탈염소화

▲서인선 = 호기적 조건에서 Cellophane과 PHB/HV 공중합체의 생분해도에 관한 연구

▲최유철 = 퍼지이론을 이용한 쌀밥의 관능평가

▲김민주 = 족삼리향과 수구열 전침 자극이 실험적 뇌경색 환자의 혈압 및 국소 뇌혈류량에 미치는 영향

▲정용욱 = 청간간담이 Ethanol로 인한 백서의 간 및 위조직손상에 미치는 영향

▲강신욱 = 동북아지역 군순강구축방안에 관한 연구-무안강지역을 중심으로-

▲김종영 = 법인세유연회에 관한 실증적 연구-특별상과 증빙금을 중심으로-

▲김정환 = 권사실폐에 대한 공인회계사와 정보이용자의 논리식차이에 관한 연구

▲변성철 = 저온에서 성장된 Si-doped AlGaAs의 광학적 특성

▲최성준 = Erbium도핑된 InGaAs/InP PIN PD 제작 및 특성

▲강신혜 = Rapid Screening법을 이용한 콩 팥중간의 Lipoxigenase의 활성에 관한 연구

▲양현호 = 탄산나트륨 첨가가 폐놀수

지 정착제의 경화속도에 미치는 영향

▲김규영 = 목재 변색균 및 표면 오염균류에 대한 Streptomyces rimosus의 항균작용에 관한 연구

▲박재경 = 유색도기감각색소상피세포의 배양방법개선과 이들의 시험관내 기능 및 형태학적 특성에 관한 연구

▲최문호 = 불가사리로 부터 추출한 합성 물질의 항균 능력검색과 항균활성 물질의 이화학적 특성

▲이기상 = In Vitro에서 매미나방 일종벌(Ooencyrtus kuvanae Howard) (붙미 : 일종벌과)의 인공증식에 관한 연구

▲이원일 = MOSFET 전력 증폭기의 최적설계

▲장창희 = 객체지향 기법을 이용한 유닉스 명령어 번역기의 설계 및 구현

▲최혁근 = 디스크 배열의 성능 향상을 위한 동적패리티 배치 방식

▲윤화동 = 적층 계층을 이용한 무손실 이미지 압축 기법에 관한 연구

▲구성자 = EBNF로부터 구문 트리 자동 생성에 관한 연구

▲맹인재 = 정전류 인버터로 구동되는 리니어 BLDC 모터의 설계이론 및 특성 연구

▲이준철 = 양속식 가동자석형 LDM의 위치제어계구성 및 특성해석

▲김원배 = 동물세포배양에 의한 수두 바이러스 대량생산에 관한 연구

▲김성주 = 열기성 미생물의 Comatabolism을 이용한 염소계 폐놀류의 탈염소화

▲서인선 = 호기적 조건에서 Cellophane과 PHB/HV 공중합체의 생분해도에 관한 연구

▲최유철 = 퍼지이론을 이용한 쌀밥의 관능평가

▲김민주 = 족삼리향과 수구열 전침 자극이 실험적 뇌경색 환자의 혈압 및 국소 뇌혈류량에 미치는 영향

▲정용욱 = 청간간담이 Ethanol로 인한 백서의 간 및 위조직손상에 미치는 영향

▲강신욱 = 동북아지역 군순강구축방안에 관한 연구-무안강지역을 중심으로-

▲김종영 = 법인세유연회에 관한 실증적 연구-특별상과 증빙금을 중심으로-

▲김정환 = 권사실폐에 대한 공인회계사와 정보이용자의 논리식차이에 관한 연구

▲변성철 = 저온에서 성장된 Si-doped AlGaAs의 광학적 특성

▲최성준 = Erbium도핑된 InGaAs/InP PIN PD 제작 및 특성

▲강신혜 = Rapid Screening법을 이용한 콩 팥중간의 Lipoxigenase의 활성에 관한 연구

▲양현호 = 탄산나트륨 첨가가 폐놀수

## <불교대학원>

▲김재두 = 선법에 의한 삼기성증후군의 치료에 관한 연구-아범경전의 선과 사고 중의 병고와 관련하여-

▲안영희 = 고려 시찰왕신인에 관한 연구

▲김석 = 화엄경의 교육관 연구

▲황정수 (법명=대진) = 구선전문의 형성과 시대적 변천 연구

▲김광자 = 용의 집합무의식에서의 개성의 해방과 아라야의 정화(淨)-삼담자의 개성의 해방과 아라야의 시의 필요성-

▲김오성 = 다문화의 현대적 운영에 관한 연구

## <행정대학원>

▲나훈수 = 행정윤리 확립방안에 관한 연구

▲정종원 = 국제화시대 한국 관료제의 발전적역할에 관한 연구

▲김창복 = 중앙과 지방간 환경행정기능의 합리적 배분에 관한 연구

▲송승광 = 방위산업협회의 구배제적 관리 방법에 관한 연구-일괄제적(사) 및 분할(관급) 계약관리를 중심으로-

▲장세용 = 국방행정의 정보공개에 관한 연구

▲손태영 = 행정전산화에 따른 개인정보에 관한 연구

▲신동준 = 직업군인 시기증진에 관한 연구-육군 간부를 중심으로-

▲김근수 = 광명시 지방세도의 수입의 증감과 운용방안에 관한 연구

▲문성기 = 사회체육행정의 합리적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추국성 = 남북한 군비통제 정책방안에 관한 연구

▲최동준 = 일선경찰의 민원 서비스에 관한 연구

▲서운교 = 만공당 및 가미만공당이 고지환에 미치는 영향

▲오소자 = 공신도당 및 당구보월당이 너 및 혈장의 Serotonin과 Catecholamine함양에 미치는 영향

▲이준희 = 생간담이 Sarcma-180을 접종한 Mouse의 항암효과에 미치는 영향

▲이진아 = 황련류의 근질한 유방 병원성 미생물 억제효과에 관한 연구

▲도원석 = 봉독류미의 흰쥐의 슬관절염증성 부종에 미치는 영향

▲김규희 = 근로자 건강진단시 간기능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대전 서구 위원회 제도 운영을 중심으로-

▲정예성 = 한국지방자치의 정치적PR방안에 관한 연구-서울특별시 의회를 중심으로-

▲배영복 = 군 홍보전략 개선에 관한 연구

▲김영삼 = 언론매체를 통한 교통안전 홍보방안에 관한 연구

▲최광일 = 일본의 군사전략과 한국안보에 관한 연구

▲조수호 = 일본의 방위력 증강이 한국안보에 미치는 영향

▲권수창 = 중국 해군력 증강이 한국안보에 미치는 영향 연구

▲유재구 = 아시아 태평양 다자간 안보 협력체 구조적 분석-통합이론을 중심으로-

▲정진순 = 한국에비교 제도의 실태분석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북구, 훈련, 지원체제를 중심으로-

▲김한성 = 일본 군사대국화에 따른 한국안보의 대응방안

▲김동성 = 독일 통일을 통해 본 한반도 통일에 관한 연구

▲안성환 = 방위비 분배 차원에서 한-미 군사협력관계 연구

▲이윤규 = 한반도 주변 핵상황에 관한 대응책 연구

▲최원익 = 주한미군 감축에 따른 한국군의 전략대안 「군사전략, 군사력, 무형 전력확장」

▲최달수 = 북한 헌법을 중심으로 본 노력승계 연구

▲김용석 = 국방인력 관리체계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우수 직업군인 획득을 중심으로-

▲박진호 = 일본 핵무장 가능성에 관한 연구-한국안보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류승태 = 일본의 군사증강 전망과 한국안보의 대응방안

▲김영규 = 동북아 안보협력체 구축에 관한 연구

▲류광철 = 김정일체제가 한국안보에 미치는 영향 연구-북한의 권력승계를 중심으로-현

▲장현식 = 동북아 지역안보체제 구성과 한-일 해군협력 방안 연구

▲박정호 = 일본의 안보환경과 방위력 증강에 관한 연구-한국안보와 관련하여-

▲김한국 = 독일통일이 한반도 통일에 주는 교훈 연구

▲차동규 = 북한 국어교과서에 나타난 정치교육 연구-남북한 국민학교 국어교과서를 중심으로-

▲김해영 = 북한식 사회주의와 체제 변화가능성에 관한 연구

▲정계환 = 김정일 체제의 개혁방안에 관한 연구

▲윤규원 = 북한의 무역구조와 남북한교역에 관한 연구

▲이윤수 = 건설근로자의 안전의식이 화재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에 관한 연구-안전의식의 실태조사를 중심으로-

▲손동철 = 비행안전과 조종능력에 관한 연구

▲김진혁 = 환경범죄의 법적 규제에 관한 연구

▲이석호 = 청소년 대인범죄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폭행과 상해를 중심으로-

▲윤민하 = 마약류 국제규제에 관한 연구-국제조약 및 기구를 중심으로-

▲김선영 = 도로교통 환경악화에 따른 도로교통법 개정방안에 관한 연구

▲김준기 = 한국 소년보호처분에 관한 연구

▲제갈해용 = 경문검색의 범리에 관한 연구

▲김인 = 국제테러리즘 인지를 위한 법적 고찰

▲이경수 = 크레디트 카드 부정 사용에 따른 법적 고찰

▲김동근 = 소분 홍보활동에 관한 연구

▲최은희 = 한국 장애인 복지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최원익 = 능촌노인 부양실태와 사회복지 욕구에 관한 조사연구-충북 괴산군 중심으로-

▲이한영 = 주거서비스에 대한 노인의 욕구분석-서울시 거주 노인을 중심으로

▲김준현 = 북한의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연구

▲윤석원 = 실버산업의 현황 및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윤두호 = 사회복지관의 지역복지사업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김삼미 = 재가노인복지기관의 운영실태에 관한 연구

▲하영숙 = 고령화 사회에 따른 한국노인의 주거정책에 관한 연구

▲홍광표 = 거주보호노인 생활실태조사 연구-서울시 중계동 거주 무주택 노인을 대상으로-

▲염철용 = 한국 학생들의 효행의식과 효교육 실태에 관한 조사연구-서울 및 안동지역을 중심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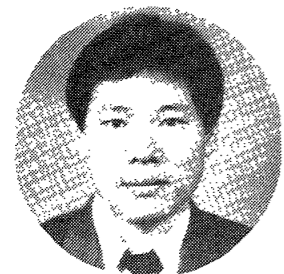
▲윤정성 = 하사관 복지향상 방안 연구-후방지역 육군 하사관을 중심으로-

## <경영대학원>

▲신동성 = 우리나라 섬유산업의 국제화에 관한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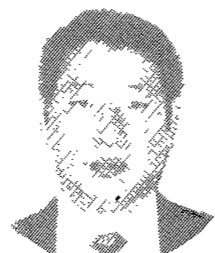
(9면으로 이어짐)

# 94학년도 2학기 신규교수 프로필



**▲안선현**(이과대 수학과 전임강사)  
· 82년 본교 수학과 졸업  
· 88년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리버사이드) 수학과 석사학위(이학석사) 취득  
· 92년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리버사이드) 수학과 박사학위(이학박사) 취득  
· 대학수학 전공

**전임강사**  
· 78년 본교 법학과 졸업  
· 87년 서울대 대학원 행정학 석사학위 취득  
· 89년 미 Pennsylvania대 행정학 박사학위 취득  
· 92년 미 Stanford대 경제학 박사학위 취득  
· 경제 발전 성장론 전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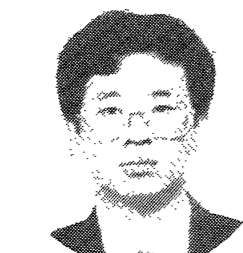


**▲선관제**(공과대 기계공학과 전임강사)  
· 81년 서울대 기계공학과 졸업  
· 83년 서울대 대학원 기계공학과 석사학위(공학석사) 취득  
· 92년 미 Stanford대 기계공학과 박사학위(공학박사) 취득  
· 유체공학 전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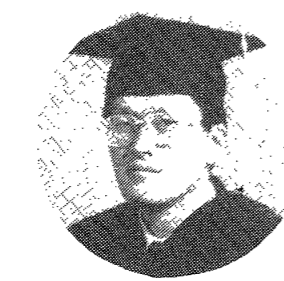
**학과 전임강사**  
· 77년 인하대학교 전기전자공학과 졸업  
· 81년 한양대학교 산업대학원 산업공학과 석사학위(공학석사) 취득  
· 92년 한양대학교 대학원 전기공학과 박사학위(공학박사) 취득  
· 전기안전공학 전공



**▲김병수**(한의과대 한의학과 전임강사)  
· 88년 본교 한의학과 졸업  
· 90년 경희대 한의과 대학원 신경정신과 석사학위 취득  
· 92년 본교 한의과 대학원 박사과정 입학  
· 한방 신경 정신 전공



**▲김형상**(이과대 물리학과 전임강사)  
· 82년 본교 물리학과 졸업  
· 84년 본교 대학원 물리학과 석사학위(물리학석사) 취득  
· 94년 독일 Köln Universität 이과대학 이학박사 학위 취득  
· 고체 분광학 전공



**▲김종일**(경상대 경제학과 전임강사)  
· 84년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  
· 86년 서울대 대학원 경제학 석사학위 취득  
· 92년 미 Stanford대 경제학 박사학위 취득  
· 경제 발전 성장론 전공



**▲고유환**(사회과학대 북한학과 전임강사)  
· 83년 본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 85년 본교 대학원 정치학과 석사학위(정치학 석사) 취득  
· 91년 본교 대학원 정치학과 박사학위(정치학 박사) 취득



**▲신정애**(의과대 의학과 전임강사)  
· 87년 경북대 의학과 졸업  
· 88년 경북대 부속병원 인턴수료  
· 91년 경북대 의과대학 기생충학교실 석사학위 취득  
· 소아과 전공



**▲황경대**(경상대 정보관리학과 전임강사)  
· 83년 연세대 응용통계학과 졸업  
· 86년 미 George Washington대 경영학 석사학위 취득  
· 91년 미 뉴욕주립대 경영학 박사학위 취득  
· 분산정보시스템(경영정보학) 전공



**▲황경대**(경상대 정보관리학과 전임강사)  
· 83년 연세대 응용통계학과 졸업  
· 86년 미 George Washington대 경영학 석사학위 취득  
· 91년 미 뉴욕주립대 경영학 박사학위 취득  
· 분산정보시스템(경영정보학) 전공



**▲심규박**(자연과학대 전산통계학과 전임강사)  
· 84년 본교 통계학과 졸업  
· 86년 본교 대학원 통계학과 석사학위(이학석사) 취득  
· 93년 본교 대학원 통계학과 박사학위(이학박사) 취득  
· 전산통계(프로그래밍 언어) 전공



**▲권경배**(의과대 의학과 전임강사)  
· 89년 서울대 의학과 졸업  
· 90년 서울대대학원 인턴과정 수료  
· 94년 서울대대학원 소아과 레지던트과정 수료  
· 소아과 전공



**▲이형우**(사회과학대 행정학과)



**▲은화연**(동과대 산림자원학과 전임강사)  
· 84년 본교 임학과 졸업  
· 86년 본교 대학원 농학석사 학위 취득  
· 93년 본교 대학원 임학과 박사(농학박사) 학위 취득  
· 임업 경영정책 전공



**▲류부형**(자연과학대 산업안전공과)



## ◆신임인터뷰 하나

### - 제4대 교수회총회장 이순용교수 교수회칙 근거한 총장선거 준비 대학발전 위한 역할 다할터

교수회 정기총회가 있었던 그 장소(신라호텔 2층)에서 몇가지 이야기를 나누었다.

- 다시 교수회직책을 맡게된 소감은  
= 무거운 짐을 짊어진 것 같다. 다시 회장으로 뽑아준 것은 대학의 제문제를 잘 풀어 가려는 뜻으로 받아들이겠다.

- 회장 임기 중에 해야 할 가장 큰 일이라면  
= 단기적으로는 총장선거를 잘 해내는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대학 발전을 위한 견인차 역할을 해내는 것이다.

- 사립대학 총학장 협의회에서는 총장직선제가 교수들간의 분열을 조장하기 때문에 고려해야 한다는 발언을 한 적이 있다. 이에 대한 의견은  
= 직선제 때문이라고 하는 '파벌·인맥'은 그들 자신이 만들어 낸 문

제다. 이것은 교권회복을 위해서도 바로잡아야 한다.

- 교수회에서는 총장선거에 대한 준비를 어느 정도 하고 있는가  
= 준비는 이제부터 시작해야 한다. 교수회칙에 근거해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우선이다.

- 올바른 총장선거 방식이라면  
= 학교의 여러의견이 수렴되어야 한다. 그러나 합동대의원회에서 이번 선거도 총대의 선출방식을 고려하고 있다. 교수들도 직선제를 바라고 있는 것 같다.

- 교수회의 발전을 바라는 학내구성원에게 한마디  
= 유능한 총장선거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또한 대학발전의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을 시정할 것이며 면학분위기를 조성에도 힘을 쏟을 예정이다.

(이유리 기자)

## ◆신임인터뷰 둘

### - 제6대 노조위원장 김윤길 총장선출, 대학민주화 향한 진통 학내 의견공유로 힘을 형성해야

제6대 직원노조가 지난 7월1일 새롭게 구성되어 2학기 사업을 구상중에 있다. '총장선거'라는 2학기 학내 최대 관심사와 관련해 직원노조의 입장과 2학기 노조사업에 관해 김윤길(총무과) 제6대 노조위원장을 만나보았다.

- 대학에서 직원노조가 해야 할 역할은  
= 전반적으로 대학의 올바른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것이지만 무엇보다 행정적 측면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면서 대학발전에 일관하는 거라 여겨진다.

- 노조가 근원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가 있다면  
= 두가지 문제를 볼 수 있다. 첫째, 학내구성원들에게 노조에 대한 인식 자체가 미흡해 학내구성원끼리 내용의 합의가 잘 되지 않는다. 둘째, 2명33명의 다양한 직종의 조합원들로 노조가 구성되어 있어 노조에 요구하는 사항이 쉽게 통일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 이번 6대노조의 사업계획은  
= 지금까지 노조의 활동 중심은 교직원들의 근로조건 개선이나 임금결의 등 노조 학내구성원으로서 자리매김해 나가는 것이었다. 이번 6대노조는 좀 더 나아가 변화하는 대학행정에 속해서 나후되거나 잘못된 점을 극복하여 대학발전을 도모하는데 최우선을 두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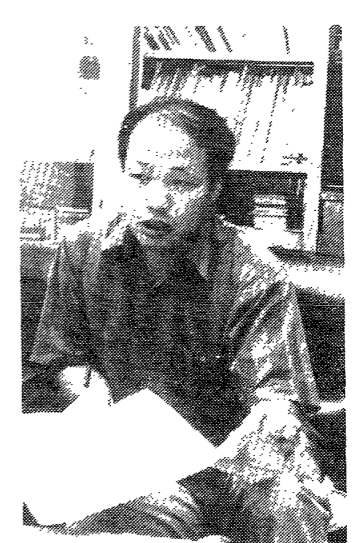
이의 일환으로 행정편람 제작이 완료되면 팀을 꾸려 학교행정의 흐름을 분석하고 문제점 등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겠다.

- 총장선거와 관련해 2학기 학내흐름은 어떻게 보나  
= 90년 총장선거를 평가해본다면 선거결과가 어땠든 간에 형식적이거나 대학민주화에 진일보했다고 생각된다.

이번 총장선거를 맞이하여 학내구성원들이 의견을 공유하지 못함으로 인해 힘을 모으기가 어려워 매우 혼란스러울 것이라 여겨진다.

- 직원노조에서 바라는 총장선거 방식은  
= 연세 교수회나 학생, 학교당국은 총장선거방식에 대해 표면적으로 거론하지 않은 상황이다. 우리는 8월초에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대학총장의 역할과 총장선출제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결과가 나오는 대로 노조의 입장을 정리해 오는 29일 노사협의회에서 학교당국과 재단에 전달하겠다.

- 비민주적인 총장선출을 이루기 위해 학내구성원들이 해야 할 일은  
= 교수회와 노조가 일정정도의 합의점을 찾는다면 재단에서 인정하는 안하는 학생들과 함께 학내에 강한 힘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선거방식이 어떻하든간에 교수회와 직원노조, 학생이 대화를 통해



민주적 합의에 도달한다면 새로 선출된 총장은 대학민주화에 기여할 것이다.

또한 계속적으로 재단에 문제제기를 해 재단혁신투쟁으로까지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 끝으로 학생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 총장선출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은 대학민주화로 향한 진통이라 생각되어진다.

총장선출문제가 대학민주화를 이룩하는 과정임을 인식하고 총장선출결과가 대학민주화에 올바른 모습으로 전개되지 않으면서 문제제기를 하고 감시와 비판을 하기 바란다.

(곽주영 기자)

### (8면에서 이어짐)

- ▲정일규=유지관리부 리스에 관한 연구
- ▲김용훈=무기체계 획득 비용-효과분석
- ▲백대현=조직사회에서의 커뮤니케이션 유형과 직무만족에 관한 실증적 연구-군조직내 일반 근무원에 대하여-
- ▲손낙영=여가활동과 직무만족에 관한 연구-C은행원의 여가활동을 중심으로-
- ▲하영호=고령인력의 활용과 관리에 관한 연구
- ▲한중희=공공 하사관의 직무 만족에 관한 실증적 연구-비행 승무원들을 중심으로-
- ▲허정진=목표관리와 방편 관리의 비교 분석
- ▲곽승인=문구제품의 구매자 관여와 사용자 관여의 비교 연구
- ▲김중석=벨벳(Velvet)의류의 구매동기와 구매불만족에 관한 연구-서울특별시의 구매자를 중심으로-
- ▲송애순=은행 서비스 품질 향상 방안에 관한 연구-서비스 품질 평가와 측정틀을 중심으로-
- ▲임재수=퍼스널컴퓨터의 마케팅 전략에 관한 연구-사용자 Needs분석을 중심으로-
- ▲정문영=우리나라 미국시장의 유통합리화를 위한 연구
- ▲정재영=가수 소비자의 정보탐색 유형과 구매후 만족에 관한 연구
- ▲최병식=광고 시장 개방의 대응 방안에 관한 실증적 연구
- ▲차성수=남성화장품 구매의사 결정에 관한 실증적 연구-부신직할시 주거자를 중심으로-
- ▲정규태=자본자유에 따른 증권시장의 변화와 대응 방안에 관한 연구
- ▲유우용=우리나라 증권회사의 수익성 제고 방안
- ▲고광훈=NAFTA의 영향과 대응 방안에 관한 연구-대미 수출산업을 중심으로-
- ▲김은순=회계정보시스템 모형에 관한 연구
- ▲박인근=응용시스템 감사에 관한 연구-자산관리시스템 감사 사례 중심으로-
- ▲서원주=국내 물류 정보시스템의 효과성 제고에 관한 연구
- ▲전병권=한의학 학술정보 System의 구축에 관한 연구
- ▲위향량=인텔리전트 빌딩의 컴퓨터 통신시스템 구축에 관한 연구
- ▲이상호=출판유통 현대화를 위한 EDI구축에 관한 연구
- ▲임희진=외식산업 정보시스템의 효과적 구축방안에 관한 연구-레스토랑을 중심으로-
- ▲김왕국=우리나라 주택금융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 ▲남충희=토지시세 개선과 자가체계의 합리적 운용 방안에 관한 연구-중앙토지제 및 임대소득세 중심으로-
- ▲박관수=한국 지가 관리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김대권=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금융제도 개선 방향에 관한 연구
- ▲김정수=핵심개발 촉진을 위한 민간 부문 활성화 방안 연구
- ▲심규섭=주택시장의 가격동향과 투자 실태에 관한 연구
- ▲오인중=UR협정에 따른 부동산 중개업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 ▲안무용=불량주택 재개발 사업의 개

- 선 방안에 관한 연구
  - ▲최종우=지가정책의 합리화 방안 연구-지가 공시제도를 중심으로-
  - ▲황지영=우리나라 토지 신장제도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 <교육대학원>
- ▲박의동=학교장의 지도성 유형과 초등 여교사의 교직헌신도 상관 연구
  - ▲정해철=지방교육재정의 구조와 운영에 관한 연구
  - ▲채성숙=교직의 갈등에 관한 분석적 연구
  - ▲한성근=국민학생의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 ▲박영숙=학급 담임교사의 지도행태와 학급분포에 관한 연구
  - ▲김갑섭=교직의 권한점유 양태 및 수준에 관한 연구
  - ▲이동우=유치원 원내 장학실태 및 교사의 만족도 분석
  - ▲김영문=학교장의 자문위원회 활용수준에 관한 연구
  - ▲이상호=이해조 신소설의 갈등해결 구조-경찰의 구실과 재판의 의미를 중심으로-
  - ▲손갑식=시시소리에 대한 연구
  - ▲김광중=김정환 소설 연구
  - ▲김나영=조선전기 잡학교육 소고-역학 의학교육을 중심으로-
  - ▲정연미=박재기의 경제개혁론 연구
  - ▲박정숙=문체 설정 교수=학습을 통한 수학 성적부진자의 문제 해결력 신장에 관한 연구
  - ▲박순희=발문학습을 통한 수학과 교수 학습방법에 관한 연구
  - ▲이시연=수학과 수업모형에 관한 연구-고등학교 중심으로-
  - ▲방국중=문제설정 수업에 대한 연구
  - ▲김광배=신라불교의 호국이념에 관한 연구-원공의 세속 오계, 원효의 계율관을 중심으로-
  - ▲최은주=울곡 교육철학에 대한 연구
  - ▲박경범=제프 콘스(Jeff Koons)의 작품연구-시리즈작 작품분석을 중심으로-
  - ▲박문선=조선전기 갑골왕도에 대한 고찰-구조와 표현양식을 중심으로-
  - ▲이윤구=케테 콜리츠(Kollwitz, Käthe) 작품연구
  - ▲주갑진=목은 이색의 불교교과서
  - ▲한권성=훈편과 비훈편 선수들의 무산소성 여파에 관한 연구
  - ▲이훈수=대학 운동선수들의 정신적 전락에 관한 연구
  - ▲강성모=신체충실등급에 따른 남자고등학교의 체육활동에 관한 연구-신체충실등급 '미'에 국한하여-
  - ▲홍명희=J.M.Syngue의 The Playboy of the Western World연구-Christy의 성장과정을 중심으로-
  - ▲이재현=고등학교의 영어 자음 청취력 조사 연구
  - ▲이해원=국민학교 영어교육에 개선방향을 연구
  - ▲김유경=어머니의 영아기 자녀지능에 관한 연구
  - ▲주영숙=C언어 교육용 도구의 설계 및 구현-Design and Implementation of Tool for a C Language Teaching-
  - ▲홍태희=MS-DOS 학습을 위한 CAI 프로그램 개발
  - ▲황수영=문자지도를 위한 아동용 교육 프로그램 개발

- ▲임현화=효율적인 서점업무 처리를 위한 인스트로 마킹 코드 설계
  - ▲강신용=불교종립학교의 불교교과서에 관한 연구
  - ▲박재선=세종의 교육사상 연구
  - ▲송경애=주부의 평생교육에 대한 인식과 기대
- ### <정보산업대학원>
- ▲최정민=분산처리 시스템에서의 교차상대 검출기법에 관한 연구-국방전산함을 기준으로-
  - ▲이재하=Form Management System을 위한 화면양식 편집기의 설계와 구현
  - ▲신남선=우리나라 정신근로자의 프라미시 권리의식에 관한 연구
  - ▲조경진=우리나라 사립대학의 홍보활동에 관한 연구-서울시내 대학을 중심으로-
  - ▲최연주=군 사병들의 TV드라마 시청 형태 및 그 이용과 충족에 관한 연구-육군 사병을 대상으로-
- ### <산업기술대학원>
- ▲차영두=실리콘 반도체 예칭기술 개발 동향에 관한 조사연구
  - ▲전상용=고속센스셀프를 이용한 GaAs16-bit SRAM의 설계
  - ▲김병광=능동필터 기능을 갖는 게스관 스위칭모드 새로운 전원장치 개발
  - ▲채영권=지붕방수 하자의 원인분석및 그대책에 관한 연구
  - ▲이점우=공동주택 하자유형과 유지관리
  - ▲한태성=Polyoxyethylene Alky Iamine

### <지역개발대학원>

- ▲정연우=군장교근무평정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박광중=조직내 커뮤니케이션과 직무만족에 관한 연구-해병대 초급간부를 중심으로
  - ▲송건식=산업재해의 요인과 예방대책에 관한 고찰-요통재해를 중심으로
  - ▲윤태승=산업체 근로자의 건강실태에 관한 고찰-H사 근로자의 정기건강진단결과분석을 중심으로
  - ▲김윤중=조례제정권의 범위와 한계에 관한 연구
  - ▲김윤호=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합정책에 관한 연구
- (이상 241명)

해설

부설유치원 부지 설정 마찰 현재 체육관 옆 후문 유력

블교아동학과 부설유치원 부지 선정이 방학중 계속된 학교측과 학생측의 협의로 9월초까지는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부터 잦은 마찰로 결과 및 합의가 어려우며 반복되는 부지선정은 학교측의 일방적인 중대병원 앞 농막부지선정으로 첫 마찰을 빚었다.

이에, 학생측은 지리적임점과 교육환경에 부적합한 요인을 들며 반대의 입장을 표명하며 정각원외 호수부근을 제기하기 이르렀다.

학생측은 "아이들과 학생들이 분리되고 아이들 정서적 안정과 신체발달에 적합한 숲과 정각원이 가까이 있어 좋다"고 정각원 부지 제시의 입장을 고수한 반면, 학교측은 "학교발전시 정각원 뒤쪽으로 학교건물이 확장될 예정이어서 학교건물 중간에 유치원이 들어서게 될 가능성이 커 부지로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해 유치원 부지선정은 다시 난관에 부딪히게 됐다.

이에따라, 학교측은 현재 체육관 옆 후문을 부지로 제시하며

강력하게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월12일 사무처장과 면담한 블교문화대 학생회장 박치민(농고 4)군은 "주요건물과 떨어져 있어 아이들이 활동하기 적합한 곳이다"라고 학교측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어 9월초 타결의 실마리를 잡게 된 것이다.

그러나 박군은 "민감한 부분인 만큼 블교아동학과와 학생들의 입장을 충분히 듣고 결정하겠다"고 말해 부지선정에 신중함을 나타냈다.

내일(25일) 학생, 사무처간의 재면담후 확정될 것으로 보이는 이번 블교아동학과와 부설유치원 건립문제는 94년 등록금협상 복지인에 합의하면서 제기된 것으로 이제 첫단계인 부지선정은 합의점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예산및 구체적 계획은 잡히지 않아 앞으로 논의가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부설유치원 설립은 오는 95년 착공, 96년 3월 완공을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취재부)

심층

노천극장 스탠드 공사중단 신라시대 유적지 발굴 문제 걸려

제11대 총학생회(회장=이혁승·회계4) 복지인인 노천극장이 설계 및 공사입찰을 마치고 착공에 들어갔으나 신라시대 절터 유적 보존과 발굴에 대한 해결점을 찾지못해 완공이 미뤄지고 있다.

건설초기부터 노천극장의 스탠드 공사계획에서 누락된 것이 발견, 학교측과 재협상과정을 거쳐 다시 스탠드 건설 계획을 세우는 등 공사과정에서 계속마찰을 빚은 노천극장은 오는 9월 완공예정이었다.

그러나 박물관(관장=황상주·미술화4)측은 "노천극장중 스탠드 건설장소가 신라시대 절터 유적 보존과 발굴에 이미 보고된 상태로 발굴이 불가할 경우 공사시행에 난색을 표명, 공사가 중단된 바 있다.

한편, 관제과의 한 관계자는 "3천여명을 수용할 노천극장 스탠드 건설은 발굴후 공사에 들어가기로 한 발굴 시기가 다소 지연될것"이라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노천극장 스탠드 공사가 속개되기 위해서는 945일간의 발굴

기간을 거쳐야 하지만 발굴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현재까지 속개 불가 및 발굴시기가 확정되지 못한 상황이다.

박물관의 한 관계자는 "5년전 문화재 관리구역으로 설정된 곳에 박물관과 아무런 협의없이 공사에 들어간것은 이해 할수 없다"며 문화재 보호차원에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불태 노천극장의 장소이전도 고려해야 할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적발굴로 인해 노천극장공사가 미뤄지게 된 이번 사건은 먼지 문화재 관리구역에 노천극장 부지를 선정, 문제의 단초를 제공한 학교측의 탁상행정과 공사초기 문화재 발굴을 못한 박물관 및 관계자들의 무성의가 조판돼 빚어진 결과임을 부인하기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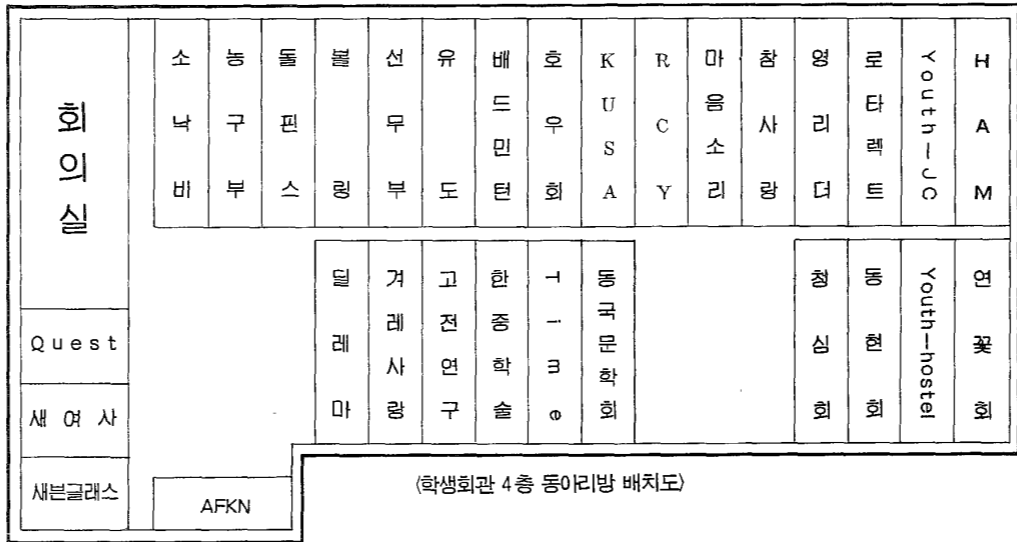
또한 학생들의 이해와 요구를 안아 복지사안으로 올린 사업을 원활히 조정·수행하지 못한 총학생회와 함께 학교 행정기관및 부속기관 상호 협조체계에 대한 비판의 지적이 나오고 있다.

(취재부)

# 학생회관 공간이동 완료

## 학생기구와 학교측 마찰 예상

### 4층 30여개 동아리방 이전



학생회관 층고가 완공됨에 따라 각단체 및 자치기구의 자리가동과 함께 오는 29일부터는 30여개의 동아리들이 학생회관 4층으로 이동하게 된다.

학생회(회장=김용기)는 학생회관 층고에 따른 공간배정을 '학교 학생회 및 특수성 있는 동아리를 제외한 모든 학원기구를 학생회관 안으로 들어갈수 있다'는 원칙을 세우고 배정방법에 있어 각 학생기구와 자치기구의 협조에 의한 협력 관계를 원칙으로 세운바 있다.

현재 학생회관 1층은 학생회와 장학과가 원외관 구 화합실실로 자리를 이동 한 가운데 교육방송국

이 학생회, 상경대, 인문대 학생회 자리로 이동 중이다. 또한 학생회와 장학과 자리에 상경대, 학부위가 이동 했으며 인문대 공간을 남겨둔채 있다.

학생회관 2층에는 불문대, 범정대 학생회, 졸업준비위원회가 교육방송국 자리로 이동할 예정이며 3층 조국통일위원회 자리에 이부대학생회가 들어올 예정이다.

그리고 층고된 4층 동아리방에 대해 동아리연합회(회장=심수민·통국연구회)는 30여개의 동아리 이동(도표참조)을 오는 9월2일까지 완료하고 오는 9월8일 입주식을 가질 예정이다.

한편, 불문대, 인문대 학생회는 '단대학생회는 학우들 주위에 있어

# 학생방송장 녹아원 이경태(생물3) 을 만나

## 교육방송국 영상방송 위해 이전

### 내년부터 일부 실시



지난 1학기 공사를 거쳐 층고가 모두 완료된 학생회관이 2학기 개강을 맞아 총 30개의 동아리를 새로 맞이함과 동시에 학생회 및 학생과등 학교 각 기구들의 공간 재 배치가 진행중이다.

합리적인 공간 활용을 위한 공개적 의견수렴 미비등의 아쉬움을 남긴 이번 공간 재배치 과정에서 학생회관 2층에서 1층 학생회 및 학생회 자리로 이전 하는 교육방송국의 학생 방송장 이경태(생물 3)군을 만나 보았다.

-이전 배경과 의미는  
= 지난 85년 도서관에서 학생회관으로 이전하며 협소한 공간 문제를 다소 해결하긴 했지만 지난 89년부터 추진해온 영상방송 시스템 준비를 위해 올해 영상방송 기자재를 일부 들여옴과 동시에 공간을 늘려이동을 하게 됐다.

- 영상방송의 필요성과 준비 상황은  
= 그동안 오디오 방송의 한계가 점점 드러났던 것이 사실이다. 학우들에게 신속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수단으로 시가지적인 면을 감안할때 영상방송이란 매체의 필요성은 증대될수 밖에 없다. 실제 경제대, 동아대, 한양대 등에서 영상방송이 학우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현재 일부 기자재를 동원 내년부터 학생회관 식당과 휴게실에 영상방송을 실시할 계획이나 역시 계획일뿐 영상방송을 제대로 실행하기 위한 기자재 확보 및 경험축적이 모자란 실정이다.

- 학교측에 비관도 심은 점은  
= 기자재 확보문제를 학교측과는 논의하면서 서울과 경주의 재정부담이 시급하다는 생각을 했다.

독립적인 예산이 확보 안된 상황에서 무리하게 일을 추진하다 보니 내부 출혈이 심했단것이 사실이다.

- 공간 이전과정에 대해서는  
= 이제 학생회관 공간 배치에 대한 각 부서간의 이해가 절충된 상황이지만 협의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가 부족했고 각 부서의 이해와 요구를 서로 주장하며 충돌을 가져오기도 했다.

부족한 공간의 활용에 대한 합리적 견해와 이해조정이 아쉬웠다.

아직 남아있는 경우엔 공간 활용문제에서 만큼은 이점을 극복해야 할 것이다. (이재환 기자)

# 학부위 수질검사 실시

## 한의대, 도서관 식당 부적합

본교 학생복지위원회(위원장=서경보·법4)는 지난 8월12일, 학내 10곳의 수질검사를 실시했다.

방학내 통제된 기숙사와 진흥관 식당, 지하수인 정각원을 제외하고 실시한 이번 검사에서 한의대 전체 상수도과 도서관식당 수질이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9개의 검사항목으로 평가된 이번 검사를 살펴보면 △도서관식당은 염도나아성질소 0.5mg/l 이하인 기준치를 초과하는 5mg/l 을 나타냈으나 소독염소를 제외하면 인체엔 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의대 상수도는 일반세균 100/ml 이하기준치에 120/ml, 대장균 무/50ml이하기준치에 양성/50ml로 부적합을 나타내 상수도를 직접 마시면 안되는것으로 밝혀졌다.

학생복지위원회측은 이번결과를 학우들에게 알리는 한편 부적합한 점이 난 곳은 정밀 재검사를 실시해 구체적으로 알아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근거리 통신망 공사  
한의과대의 의과대 학생들의 편리하고 신속한 도서대출을 위해 대용량 전송이 가능한 광케이블(4-core)통신회선을 설치, 총4천5백여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이번공사는 오는 9월말 완공 예정이다.

수강정정 29일부터

'94학년도 2학기 수강신청 및 수강정정이 오는 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 실시될 예정이다.

교무과(과장=이중석)는 "수강정정시 폐강과 강의시간의 겹침으로 인한 어쩔수 없는 정정의 수강정정의 사유가 될수 없음을 원칙으로 하고 불필요한 수강정정을 학생들이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도색작업 완료

관제과(과장=정창현)는 지난 6월10일부터 8월 8일까지 도서관 내벽 및 지붕, 한의과관 지붕, 원외관 외벽 및 내벽일부의 도색 작업을 마쳤다.

이번 도색작업은 벗겨진 도색과

총학생회 기관지 발간

총학생회(회장=이혁승·회계4)는 총학생회 기관지를 오는 29일 교내 일원에 배포할 예정이다.

총44페이지 분량인 총학생회 기관지는 △취업문제 △학생회와 상반된 사업결과 등을 주내용으로 다루고 있다.

사격부 최병우 사격대회 4관왕

경주캠퍼스 사격부(코치=김태호·학생과) 최병우(관경 4)는 지난 9월 12일부터 12일까지 태백국제종합사격장에서 열린 제6회 고 박종규배 한일

사격대회에서 4관왕을 올렸다.

최병우(10일) 소구경소총 복사에서 대회신기록인 5993점을 수립하면서 개인전과 단체전에 우승한데 이어, 다음날(11일) 남대부 소구경소총 3자제 개인전에서는 대회신기록인 1천1백54점으로 우승, 단체전에서도 3천3백72점으로 일본을 누르고 한국을 우승으로 이끌었다.

경주시 배드민턴 협회(회장=이상복) 주최 '국가대표 초청 배드민턴 무료 강습회가 지난8일부터 12일까지 오후6시 문무관에서 개최됐다.

총90여명의 경주시민과 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김현시청소속 8명의 선수들은 세글수로 나눠 라켓치는 법, 기본스텝, 기본기술, 시합요령등을 강의했다.

**프랑스어**

프랑스어와 프랑스문화의 만남은 알리안스프랑스에서

**alliance française**

9·10월 학기 개강 9·1(목)

BEF I II, MA I II, NSF I II, AP, ARC, ESP I II, 자유회화반, 시사뉴스반, 시사 토론반, 독해작문반, 상업 무역 분야 및 비서직 학위 준비반, 비디오 시청각반, DELF 준비반, etc

**94 알리안스 주관시험**

- DELF DALF 시험 실시
- 프랑스 정부 교육성 주관하의 프랑스어 지식 및 구사 능력 학위증 발급
- 상업 무역 분야 및 비서직 학위증
- 프랑스 상공 회의소 주관 학위증 수여

**유학 상담**

- études en France
- voyages
- stages de langue

이제는 알리안스에서 직접하세요. '94 가을학기 언어연수

Séoul-centre ☎755-4972/5702(중구) nam-séoul ☎555-1125/1126(강남)

프랑스어와 프랑스문화의 國際學校 (세계 100여개국에 1000여개의 알리안스)

**Alliance Française**

외국어 교육 1번지!

YBM/시사영어사 직영

**현대 시사어학원**

HYUNDAI SISA LANGUAGE INSTITUTE

**英語·日語·中國語**

- TOEFL
- TOEFL LC
- TOEIC
- AFKN 청취
- TIME
- VOC. 22,000
- 영자문해
- 영자문연구
- 실전수업영어
- 영어실용기초
- 성문중합영어
- 영어회화(한국인)
- 영어회화(미국인)
- 일본어 초·중·고급
- 일본어회화(일본인)
- 중국어 초·중·고급

**ECC 영어회화 과정**

- 정월제·Level Test 실시
- 전강사 Native Speakers

**일본인 일본어 회화과정**

매월 일 개강 - 수시등록·수강

전화 : 276-0509(대)

파고다 공원 맞은편 시사영어사 뒤

- 『북한자료센터』 이용안내 -

통일원에서는 북한 및 통일관계자료를 국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북한자료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위치 : 서울광화문우체국 6층
- 소장자료 내역

구분	자료내역
문헌자료	● 북한 및 중국, 러시아 등에서 간행된 도서 및 관련 정보, 자료문헌 ● 통일 및 남북한 관계자료 ● 공산주의 관련 및 비판서
정기간행물	● 북한 및 중국, 러시아 등에서 간행된 정기 간행물 ● 기타 통일관련 국내외 정기간행물
시청자료	● 북한에서 제작된 각종 영상자료 ● 기타 통일관련 마이크로 필름자료

- 이용대상 : 누구나 제한없이 열람 가능
- 이용시간 : 평 일 : 09:00~17:30  
토요일 : 09:00~12:00
- 북한영화상영
  - 정기상영 :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 14:00
  - 수시상영 : 단체별도 요청시
- 귀순자초청 북한실상토론 개최
  - 단체별도 요청시 관심분야별로 전문가, 귀순자와의 대담토론 실시
  - 학교 및 단체별 수시 신청, 접수

**통일원 북한자료센터**

(전화 : 730-7013~4 FAX : 730-7015)

CHUNG MOON LANGUAGE INSTITUTE

인어로! 영·일 세계로!  
중·불·독

Everybody's talking about ...

종로2가 종로서적뒤 TEL. 738-5151

**청문외국어학원**

행정편람 11월 제작

기획조정실 (실장=황창규·경영학)은 본교의 행정을 표준화하여 행정력을 향상시키고자 지난 6월부터 행정편람을 제작중이다. 행정편람은 현재 교수2명과 직원 15명으로 위원회가 구성되어 원고 제작중에 있으며 행정일반, 교무·학생·인사·재무·관리행정, 부속기관등으로 내용을 구성하여 오는 11월까지 제작하여 배포할 예정이다.

도서관 27일 공사완료

관리처 (처장=김창순)는 지난 7월 본관, 학생회관, 학림관, 체육관 화장실 9개 개수공사를 비롯해 도서관 입구 개수공사, 역경원 서고 신축공사 등 학내 90여곳에서 공사를 진행중이다.

지난 하계방학 기간동안 공대앞 조경공사와 각 건물 노후 천정 보수 및 도색공사, 연극영화학과 소극장 보수공사를 마치고 8월말 완공 예정으로 계산고시사 내부 도색과 출입문 보수 공사, 우체국, 학군단 내부 도색중이다.

한편 도서관출입구 공사는 오는 27일 완료될 예정이다.

학생회실 전화기 설치

제10대 학생복지위원회 (임시위원장=김희순·불교4 이하 학부위)는 어제 (23) 각 과학생회실에 전화기를 설치했다.

학부위의 숙원사업인 전화설치는 관제과(과장=오복웅)와 협의하여 실시되는 것으로 각 과학생회실에 C급전화기를 설치하여 사용하게 되며 전화기의 관리·수리 책임은 각 과학생회가 지게된다.

주부미술대학 졸업식 열려

중구예술제 주부미술대학의 졸업식이 지난 11일 명진관(A203)에서 열렸다.

50여명의 주부들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된 졸업식은 교수축사, 감사·주부대표소집발표순으로 진행되었다.

이에 대해 기획팀소속 이태범(철89학번)군은 "중구예술제 사진정보 행사인 주부미술대학은 대학을 지어 구민의 평생교육의 장으로 개발하려는 취지로 시작했으며, 그것이 미술로써 지역과 대학이 만나는 장을 마련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총학 개강맞이 떡잔치

제26대 총학생회 (부총학생회장=고정환·아간경제4)는 2학기 개강맞이 떡잔치를 오는 31일 만해광장에서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KBS기쁜우리 젊은 날에서 본교의 개강맞이 떡잔치를 취재하는 공개방송으로 진행되는 형태인데 개강맞이 고사와 함께 프로그램을 시작하며 본교 출신 유명 인사와 연예인도 초청 할 예정이다.

인천 한방병원 개원
한·양방 협진체계 국내최초



〈국내최초의 한·양방 협진체계가 이루어질 본교 동인천 한방병원 개원식이 지난달 21일 동인천 길병원에서 있었다.〉

본교 인천 한방병원이 지난달 21일 동인천 길병원에서 개원식을 갖고 의료서비스를 시작했다.

이날 개원식은 오복원 이사장, 민병천 총장, 황명수 동창회장을 비롯하여 이길녀 길병원 이사장, 서문각 안재관 이사, 박양일 전보사부 장관 등 관계인사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치루졌으며 이로써 본교는 경주, 서울 방배동 병원에 이어 3번째 한방병원을 운영하게 됐다.

민총장은 개원사를 통해 "인천 한방병원의 개원은 국내 유일의 한·양방 협진체계가 한국의학 발전을 가져올 것"이라고 밝히고 "그동안 애 쓴 분들께 감사드립니다"며 치사를 덧붙였다.

이어 오복원 이사장, 민병천 총장, 송석구 부총장등에 대한 길병원 측의 감사패 수여와 이길녀 길병원 이사장에 대한 학교측의 감사패를 전달하는 순서를 가졌다.

이번에 개원한 인천한방병원은 의료법인 길 의료재단과의 협진체계에 한 건물내에서 공동진료하며 환자는 필요에 따라 한·양방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종합대학 한의학과와 양방 종합병원간 협진체계는 국내에선 처음인 것으로 알려져 국내의료발전에 일정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방병동은 길병원내 8층과 9층에 위치하며 한방내과, 한방신경정신과, 한방부인과, 침구과, 한방소아과, 한방요양과, 한방안과비인후과 등 7개과를 개설했다.

또한 특수 진료시설로 중풍, 비만, 관절염, 산후, 허약아, 신경성위장질환, 제철의약, 요통, 금주 클리닉 등 9개 클리닉을 도입 운영한다. 동국인천한방병원은 지난해 10월 길 의료재단과 처음 협의를 이루어진 이후 지난 4월 개원시설공사와 업무프로그램 개발에 착수했으며 5월 동인천보건소로부터 개설허가를 받고 개원을 준비해 왔었다.

중구예술제 1차기획안
단체학술제 함께 열린 예정

대학과 지역민의 대화의 장 제1회 중구예술제 (학생준비위원회=고정환·아간 경제4)의 행사시기와 내용등을 담은 1차기획안이 지난 20일 제출됐다.

오는 10월8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될 예정인 이번행사는 학술행사, 전시행사, 공연행사, 일반행사 등 4개 분야로 나뉘어 기획, 준비되고 있다.

현재 준비되고 있는 중앙 기획행사로 는 △개막식 △폐막식 △동국가족음악회 등이 준비되고 있으며 이외에도 전통무예시범, 학내 문예패 공연 등이 다채롭게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중 10월8일 만해광장에서 시작될 예정인 개막행사는 학내 문예패가 집중합창으로 보이며 중구 지역 문예단체, 시민단체 문예패, 외부 문예단체 등이 참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구체적인 연출안은 연출자가 선임된이후 제출될 예정이다.

또한 행사 마지막 날인 10월15일 장충단 공원에서 치뤄질 예정인 폐막제는 중구 시민·학생 노래자랑 형식으로 진행 될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본교 교수, 직원, 재학생, 동문과 가족들이 함께 할수 있는 행사로 10월14일에는 동국가족음악회가 준비되고 있다.

이행사와 관련해 기획실의 한관계지는 "현재 한국방송공사(KBS) 열린음악회 담당자와 논의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관계자는 각 단과대 학생제등이 중구예술제 행사 전이나 행사기간중 배치 될것이라고 밝히고 이와함께 백상체전의 주요 결승행사도 행사기간중 치루게 될것이라고 밝혔다.

학생처 5대방침 발표

정치성 집회불허·학생간부 정예화 등

학생처 (처장=노완섭·식품공학)는 학내 면학분위 쇄신을 위한 5대방침을 발표했다.

첫째, 면학분위 조성 위해 생산적이고 학술적인 학생활동은 적극 지원하고 비생산적·비학술적인 활동은 금한다.

둘째, 국가가 허가하지 않은, 정치성을 띤 집회를 불허한다. 셋째, 학생취업을 극대화한다. 취업실명회를 강화하고 취업기회를 발굴하며 재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한 취업특강을 개최한다.

넷째, 장학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한다. 개인소득에 전제에 이익을 주는 방식을 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현재 평균 15이상인 학생간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던 것을 평균 20이상으로 상향조정한다. 또 15이하인 학생간부가 차등으로 장학금을 받던 것을 인정하지 않는 '장학금 심명제'를 실시한다.

노완섭 학생처장은 "장학금 심명제를 실시해서 불이익을 받는 학생간부는 소수에 지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섯째, 학생간부의 정예화를 꾀한다. 이에 대해 노완섭 학생처장은 "간부이기 이전에 학생이고, 학생의 본분은 학업이므로 학업에 힘을 쏟는 모습을 보여야 할것"이라며 "이 5가지 방침은 학내 면학분위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며 크게는 학교 발전을 위한 차원"이라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본교 교수, 직원, 재학생, 동문과 가족들이 함께 할수 있는 행사로 10월14일에는 동국가족음악회가 준비되고 있다.

이행사와 관련해 기획실의 한관계지는 "현재 한국방송공사(KBS) 열린음악회 담당자와 논의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관계자는 각 단과대 학생제등이 중구예술제 행사 전이나 행사기간중 배치 될것이라고 밝히고 이와함께 백상체전의 주요 결승행사도 행사기간중 치루게 될것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본교 교수, 직원, 재학생, 동문과 가족들이 함께 할수 있는 행사로 10월14일에는 동국가족음악회가 준비되고 있다.

이행사와 관련해 기획실의 한관계지는 "현재 한국방송공사(KBS) 열린음악회 담당자와 논의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관계자는 각 단과대 학생제등이 중구예술제 행사 전이나 행사기간중 배치 될것이라고 밝히고 이와함께 백상체전의 주요 결승행사도 행사기간중 치루게 될것이라고 밝혔다.

원광대와 학술교류 협정 체결

대학종합평가조항 '국내대학간 협력' 대비

본교는 지난 7월22일 국내 대학과는 처음으로 원광대학교 (총장=김삼룡·본교 불교학과 56년졸)와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했다.

기본 협정내용을 살펴보면 연구자(전임교원, 연구원)·학생(학부생, 대학원생)·학술정보·학술자료·학술정기간행물·교과와 공동연구계획, 상호시찰의 제공 등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앞으로 교류를 통해서 협정내용을 꾸려나갈 예정이다.

기획조정실 (실장=황창규·경영학)기획과 박승중계장은 "원광대가 불교와 같은 동양사상이며 비슷한 원광교를 설립이념으로 하고 있어 학술교류차원에서 활발한 교류가 기대된다"며 "두 학교가 필요할때마다 제도적으로 교류를 활용할때 상호발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원광대학교는 현재 전북 이리에서 50만명의 캠퍼스를 보유하고 있으며 15개 단과대학 86개학과와 5개 대학원으로 구성되어있고 재학생수는 2만2천5백여명인 지방명문사학

으로 알려졌다. 이번의 교류협정체결은 상호 대학종합평가(사회봉사 영역 제외)동 항목중 '국내대학간 협력'조항 대비를 앞두고 이뤄진 것이기도 해 앞으로 학문적 상호보완이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여겨진다.

인철과 김모교수 복직

학생측 "받아들일수 없다"

인도철학과 (학생회장=이상환)는 김모교수의 복직에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지난 91년 인철과학생회가 김모교수의 무능성, 채용과정에서의 부정비리등을 이유로 김모교수의 완전퇴진을 주장하며 이사장실 점거농성을 했었다.

그때 아무런 해결대안도 내놓지 못하고 돌연 휴직, 인도로 갔던 김모교수가 인철과학생들과 사전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올 2학기 종합강의시간표에 자신의 강의 3개를 포함시켰다.

이에 인철과학생회는 △소속변경을 통한 교수 임용이 가능했던 이유 △공채서류의 허위 기재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 △박사학위 논문및 저서의 표절에 관한 학자적 양심 △91년 당시 휴직했던 이유 △휴직 후의 연구성과와 10년 근속표창이 가능했던 이유등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인철과 학생회는 "김모교수의 설득력 있는 해명없이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밝히고 "인철과 비상학생대표자회의의 결과로 우리의 공식적인 입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수회

이순용 회장 연임

교수회 (회장=이순용·법학)는 제4대 임원선출을 위한 94학년도 2학기 정기총회를 지난 19일 신라호텔 2층 디너스타일에서 가졌다. (관련인터뷰 9면)

교황선출방식으로 진행된 교수회장 선거는 총투표자 1백99명중 1백16명의 추천으로 이순용(법학)교수가 연임하게 됐다.

또한 부회장은 염준근(통계)교수, 감사에는 박명희(가정교육)교수 등 임원들도 제3대 임원들이 연임하기로 했고, 교수회칙도 개정하지 않는 것으로 인건을 통과시켰다.

이후 기타 토의사항 발표에서 학교발전위원회 위원장 신용태(일본

학)교수가 교수총원의 부족에 대해 지적했으나 추후에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직원노조 임시총회

김윤길 위원장 선출

직원노동조합(이하 노조)는 지난 6월23일 동국관(L101)에서 제6대 임원장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를 갖고 김윤길(총무과) 노조위원장을 선출했다 (관련 인터뷰 9면)

김정욱(관제과), 김명숙(경영대학원 교학부)의 두 부위원장을 비롯해 사무국장, 감사 등으로 집행부를 꾸린 직원노조는 오는 29일 교무위원회의실에서 노사합의회를 통해 2학기 학내 최대 관심사인 총장선출에 대한 노조입장을 전달하고 오는 31일 '94년도 정기총회를 통해 사업 계획 및 예산을 확정할 예정이다.

학전무대

면죄부

○... 박홍 총장의 잇단 주사파 발언 내용이 증거가 없는 것으로 밝혀지자 사회적 비판이 잇따라.

검찰이 조사하는 자리에서 박홍 총장은 자신의 발언은 확인하기 어려운 것이며 단지 경험을 토대로 말했다는 뿐이라고 밝혔다.

이에 한 학우 "허위사실을 그렇게 많이 퍼도 잡아가지 않는걸 보니 주사파 발언은 면죄부인가보군"이라며 격분.

다용도실

○...학생회관의 원인모를 다용도실로 인해, 공간 확보에 실패한 학우들의 시기를 받고 있다는데.

다름아닌, 학생회관 3층의 전시설이 제기능을 상실하고, 플래카드 제작, 탈패연습장, 비상통로등으로 사용되고 있어 공간의 제기능 찾아주기 운동이 필요하다고.

이에 본 회전무대자 한마디 "공간 딱딱이 대화가 할찬인 요즘, 있는 공간도 제대로 활용 못하는데 과연 정도(正道)를 찾을수 있을 런지..."

외설 필요!

○...남앞에서 '우저 이런 나쁜 책이...' 뒤에선 '와 죽여주네'

다름아닌, '펜트하우스'의 국내 출판문제로 외설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는 요즘 명달아 연극계, 영화계에서도 이 현상이 밟 밟하고 있다고.

더욱 심각한 것은 외설시비만 나오면 책은 바락나고 표는 매진인 된다는건데, 이에 본 회전 무대자 왈 "남의 눈피해 아낌없는 투자로 줄기시는 분들, 이제 눈을 돌려 멋진 일에 투자함은 어떨런지..."

영양실조

○...2학기 부러는 부실음식 추방 철저!

학생회관 식당앞 새로운 플래카드가 걸릴 예정이라는데.

방학이라 하여 정식반찬 메뉴조차도 적어 놓일 않고 게다가 반찬은 부실하기 짝이없어 식욕마저 잃게하던 터위에 공부하던 학생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다고.

식당메뉴판을 쳐다보면 한학우, "부실음식이 가득이나 더운 여름에 학우들을 비실거리게 만든다"며 불만을 토로.

Large advertisement for SPC eye drops. It features a cartoon character holding a bottle of eye drops and a list of 5 steps for eye care. The text is in Korean and includes the SPC logo and contact information.

동국극단 창극공연 '하늘에 핀 녹두꽃'

동학혁명의 역사적 의의 재조명  
수익금은 장학재단 기금으로 쓰여져



"새야 새야 파랑새야 녹두꽃에 앉지 마라 녹두꽃이 떨어지면 청포장수 울고간다" 아이들의 천진한 노랫소리를 끌고 창극 '하늘에 핀 녹두꽃' 5일간 공연의 막을 내렸다. 지난달 16일부터 20일까지 6회에 걸쳐 국립극장 대극장에 올린 창극공연 '하늘에 핀 녹두꽃'은 본교 총동창회(회장=형평수·정오 53졸)가 장학재단의 기금 확보를 위해 시행하는 최초의 수익성 이벤트 사업이라는 데 의미가 크다. 이는 지난 6월13일 열린 총동창회 2차회장단 회의에서 장학재단설립 실현을 위한 사업으로 창극공연을 상연하기로 결정한 것. 이번 공연의 수익금은 제작실경비를 제외하고 전액 장학재단 설립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된다. 총동창회 한 관계자는 "모교발전을 위해 총동창회가 능동적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동문이 주축으로 구성된 동국극단(대표=심희만·연영 77졸)이 창

극 '하늘에 핀 녹두꽃'을 공연하게 된 것은 국악의 해인 동시에 동학혁명 1백주년이 되는 해를 맞아 동학혁명의 역사적 의의를 찾고 한편으로 우리것을 소중함을 일깨우기 위함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명창 안숙선씨가 작창, 창극의 진수또한 느끼기에 충분했다. '하늘에...'은 KBS드라마작가 이희우씨가 대본을 쓰고 국립극장 창극단 심인연출, 서울올림픽 세계민속 축제총연출을 하기도 했던 심희만 동문이 연출을 맡았다. 지금도 재학 시절 소극장에서 연수하던 때가 그림자다 심동문은 "조금이나마 모교 발전에 보탬이 되는 일을 해 부듯 하"고 말한다. 이 공연에는 많은 사람이 참여한다. 전봉준역에 명창 은희진씨, 초하역엔 유수정씨등 국립창극단원수가 참여해 열연하였으며 이외에도 연극계 원로인 고실봉, 강제석, 추석양씨가 특별출연 총 1백여명이 출연했다. 동학혁명을 소재로 한 '하늘에 핀 녹두꽃'은 2막으로 구성, 갈수록 심

해지는 수탈과 피폐해진 농촌, 부패한 관에 항거해 농민군을 일으킨 전봉준은 그와 뜻을 같이하는 수많은 농민군과 함께 작위를 일삼던 조병갑을 쫓아내고 마침내 진주성을 함락시킨다. 일본이 청일전쟁승리로 조선에서 주도권을 쥐게되자 자신해산했던 농민군은 다시 불기 하나, 신식무기로 무장한 일본군에 패배한다. 결국 배신하는 한신현에 의해 전봉준은 일본군에 체포되어 죽음을 당하고, 남몰래 전봉준을 사모하던 기상인물 초하는 남의 뜻이 하늘에서 다시 피어나길 기원한다. 이극을 통해 부패한 세상을 개혁하고자 분연히 일어섰던 동학농민군의 '보국안민 제복구민'사상을 조명하고 이를 통해 근대민주나 자주자존의 정신을 되새길 수 있다. 특히 극이 끝나면서 슬라이드를 통해 보여준 당시의 사진들은 생생함을 더했다. 얼마전에 세종문화회관에서 공연된 '금강이 신동엽의 대서사시에'가극의 전록을 시도했다면 '하늘에 핀 녹두꽃'은 극내용과 함께 창극의 어우러짐이 돋보였던 무대였다고 할 수 있다. 이번 창극공연은 동학1백주년을 맞아 동학농민전쟁을 재조명할 수 있었으나 대의가 있으나 무엇보다도 동문들의 모교에 대한 애정을 엿볼 수 있었다는 것이다. 동문연에 인물이 광고 출연료를 학교발전기금으로 내놓아 지난 개교기념식에서 감사패를 전달한 바 있던 동문들의 이러한 애정과 노력이 학교발전은 물론 동국인이라는 하나임을 느끼는 데 초석이 되지 않을까(임소영기자)

영화의 패러독스

'94여름 그리고 한국영화 새로운 르네상스시대를 위한 전진

영화의 패러독스가 이번호부터 새롭게 바뀐다. 기존에는 영화평을 통해 영화내면에 도달하는 시각 접근을 꾀했다면 앞으로는 다양한 시도를 통해 영화의 본질을 파헤쳐보는 영화전반적인 이야기를 다루게 된다. (편집자)

한국영화의 부흥에 대한 기대는 언제나 기다림과 배반의 반복이다. 사람이 감동해보이는 것 같은 대목에서는 빛나는 작품이 나오다가 하면 부활을 이야기할 때쯤이면 다시 어둠속으로 찾아온다. 한국영화에 관한 낙관적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거의 없다. 시장은 줄어들고 불만만 영화는 적어지며 그나마도 몰락자체가 눈에 띄게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영화가 바닥을 헤매고 있는 것같은 현실에서도 새로운 기류가 있따라 세워지고 있는 것은 다분히 역설적이다. 임권택 감독이 만든 오락영화 "장군의 아들"은 "겨울 여자"가 갖고 있던 한국영화최고관객기록을 돌파하며 서울 개봉관에서만 68만여명의 관객을 불러모았고 그기록은 다시 "서편제"에 의해 무너졌다. "서편제"는 한국영화로서는 처음 1백만명 관객동원이라는 신기록을 세웠다. 한국영화가 1백만명 관객기록을 돌파했다는 것은 단순히 숫자상의 성공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적어도 한국영화와 외국영화와 경쟁할 수 있고 만들기에 따라서는

관객을 불러내는 일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기 때문이다. "서편제"가 엄청난 파도를 일으켜 지나간 자리에 "투깝스"라는 영화가 다시 추격전을 벌여서 만루 홈런에 가까운 장타를 날렸다. 서울 개봉관에서만 83만여명의 관객을 불러모았고 전국적으로도 선풍을 일으켰다. 결국 "서편제"에 뒤지지 않는 약진이였다. 최고 기록은 아니더라도 "결혼이야기"나 "세상밖으로" "그 여자 그 남자" 등의 영화가 거둔 성과도 만만치 않다. 한국영화의 위기가 어느때보다 절실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을때 이대로는 안된다. 영화계가 비탄에 빠져있을때 흥행에서 성공하는 영화들이 줄줄이 등장하고 있다는 점은 어두운 그림자가 결코 해쳐나갈 수 없는 절대적 불가능은 아니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1994년 여름을 한국영화 어떻게 보았는가. 여름에 나온 영화는 "세상밖으로"와 "구미호", "할리우드 키드의 생애" "잠미호 인생" 그리고 "키스도 못하는 남자" "우리시대의 사랑"이 뒤를 이었다. 편수는 많지 않지만 그속에는 신인감독의 등장도 있고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한 하이테크 영화제작에 대한 진지한 탐색도 있었다. 또한 영화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나 오락적 재미의 추구, 작가가 실연을 담은 경우도 있었다. "세상밖으로"의 여주공이나 "구미



호"의 박현수 "잠미호 인생"의 김홍준은 막 데뷔하는 신인감독들이 "영자의 전성시대"나 "겨울여자"같은 영화로 현실참여의 목소리를 높였을때 임권택감독의 "씨받이"나 "아제이 제바라야제" "아다다"같은 영화가 외국영화에서 수상을 했을때 배정호감독의 영화들이 흥행에서 기세등등 달렸을때 르네상스를 기대했지만 그때마다 기대는 더이상 확대되지 못한채 한때의 바람으로 그치고 말았다. 94년의 여름도 결국 예년의 여름과 다를바 없는 것이다. 그러나 올여름 영화들이 보여준 결과 한국영화의 부활에까지는 이르지는 못했더라도 무기력하게 그냥 쓰러질 수 없다는 다짐과 각오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는 주목할 만하다. 그래도 기대와 희망, 가능성만이라도 남겨두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한국영화의 뿌리가 하루아침에 사라질 것같은 예견속에서도 여전히 한국영화가 존재할 수 있다는 기대이자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힘이기도 하다.

조희문 (영화학박사·영화평론가)

문화단신

연극 '새들은 제 이름을 부르며 온다'



94년1억고교수상장 김형경의 '새들은...'을 각색한 '열린무대-동-우'의 창단공연. 문화, 철학, 그림을 전공하는 대학생들 '민주사회화' 동시생 다섯명의 삶을 통해 80, 90년대를 거치는 젊은이들의 좌절과 우정을 그리고 있다. 9월29일까지, 대학로 김강술레극장 문의는 747-7491

지역에는 제한이 없으며 오는 9월 25일까지 한국관광공사 국민관광부수필공모담당자에게 접수하면 된다. 당선작은 10월11일에 개별통지되며 최우수상 1편에 1백만원이 수여된다. 문의는 729-9469

◇TV방송관람 아르바이트 모집 (주)진진 이벤트 프로덕션에서는 '행동하는 젊음'을 무기로 새로운 일에 동참할 남녀 대학생들을 모집한다. 방송녹화시간은 다음과 같다. △오늘은 좋은날=4시30분(월) △문막이 있는 곳=3시10분(수) △문화잡종 ST/D(단체10인 이상)=6시50분(토) △TV청년내각=2시30분

◇'손짓사랑' 수확공연 손짓사랑회는 수확공급과 기초반 모집홍보를 위해 오는 26일, 31일 12시에 불상 앞에서 공연을 갖는다.

◇'극예술연구회' 연극공연 극예술연구회는 과거의 진실된 사람과 현재의 불분명 사람의 대비를 통해 진정한 사람의 의미를 찾는다는 내용의 '그 여자 이순례'를 공연한다. 김광림원작, 조진웅(전자공2)연출 25·26일 5시30분, 27일 3시·6시 극희소극장(관객 5층)

메아리

보수의 늪

다. 김형삼 정권도 정권 초기의 개혁적 이미지는 벗어 던진채 점점 보수의 늪으로 빠져들어 헤어 나오질 못하고 있다. 마치 5·6공 시절로 돌아간 느낌이다. 이는 얼마전 있었던 제5차 범 민족대회장에서 여실이 들어났다. ▲이런 상황을 보고 흔히 사람들은 보수회귀 현상이라고들 이야기 한다. 이러한 보수회귀 현상이 지금의 우리시대에 보편적

경향일까. 조금만 시간을 좀더 대외사회를 살펴보자. 교육부는 학생회 활동을 통제하겠다고 호언하며 나서고 있다. 이에 편승해 학교장도 움직인다. '장학금 실행제'나 '학생회 간부의 정예화'나 '정치성 집회 불허'나 하며 전전하게 썩어난 대학의 비관론화를 말살하려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학교의 지도자를 민주적으로 세워보자는 제도를 역효과가 날지도 모른다며 폐지를 거론한다. '구더기 무서워 장 못담근다'는 속담이 생각나게 하는 일이 아닐수 없다. ▲수행하는 사람들은 흔히 이런 말을 한다. 수행이 깊어지면 절대 물러설이 없었다고 우리사회에 폭넓게 퍼져있는 이런 보수회귀 현상들도 극복의 방안은 깊이있는 수행이 아닐까. (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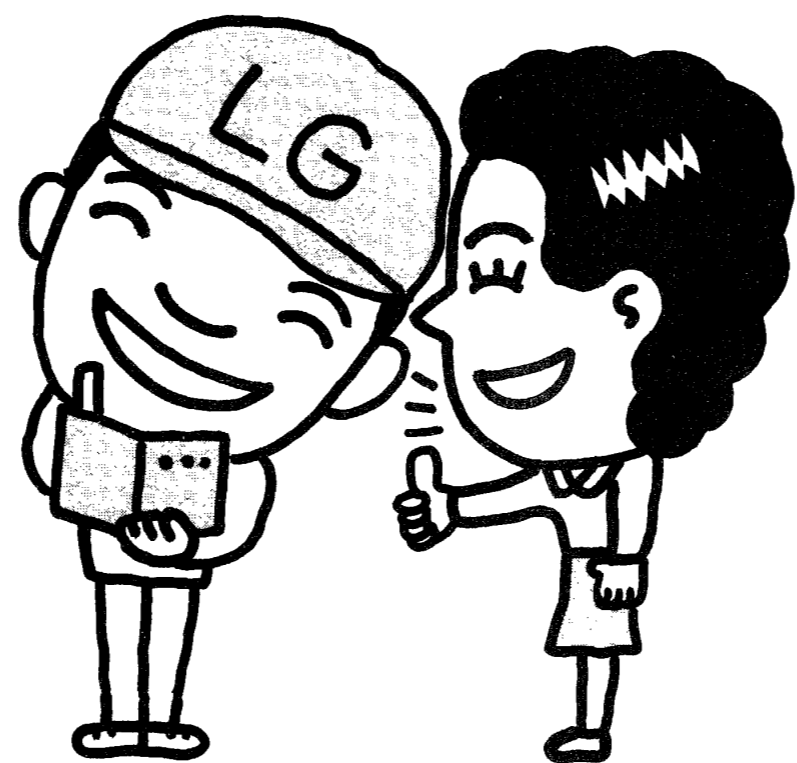
최경민 (50)



럭키금성의 실체변혁

고객을 위한 기술이 먼저!

단순한 기술 경쟁보다 고객이 필요로 하는 사용자치를 얼마나 기술에 담아내는가가 중요하다



"어느 주부의 귀뜸"

고객을 위한 가치창조 고객 제일이면 고객 제일이지 고객을 위한 가치 창조는 또 무엇인가? 이런 의문이 당연히 제기될 수 있을 듯하다. 고객 제일이면 고객 존중이든 결국 추구하는 바는 고객에 원하는 것을 최선의 노력으로 만족시킨다는 것이다. 고객이 원하는 것, 고객이 필요로 하는 가치는 과연 어떤 것일까? 그것은 경제적이기도 실질적인 도움이 됨으로써 만족감을 가지면서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가치일 것이다. 고객이 만들어 내는 제품은 그것을 사용하는 고객에게 실질적으로 이익이 되고 꼭 필요한 것이 되게 해야 하며 그럴때 그 제품은 고객에게 가치가 있다고 할 것이다.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한다 아이들이 옷을 벗어 던지면 세탁기 뚜껑이 너무 약해서 부러진다는 주부도 있고, 대형 냉장고는 음식이기가 어려우니 바퀴를 달아달라든가, 또 고무바퀴를 냉장고 뒷면에 붙여 주면 백이 상하지 않겠냐든가 하는 등,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만 가지고도 손쉽게 해결할 수 있으면서도 간파하기 쉬운 것들이 대부분이었다. 이처럼 고객은 조그만 불편사항이라도 귀담아 듣고 성심성의껏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세심한 배려를 원하고 있었다. 기술이 모든 걸 해결하지 않는다 기업에서 일방적으로 기술을 개발하여 떠안기는 것보다



인간중심의 경영 럭키금성